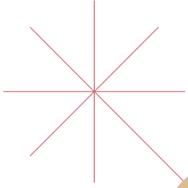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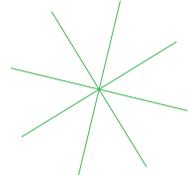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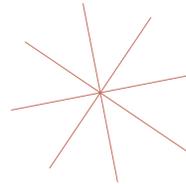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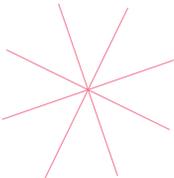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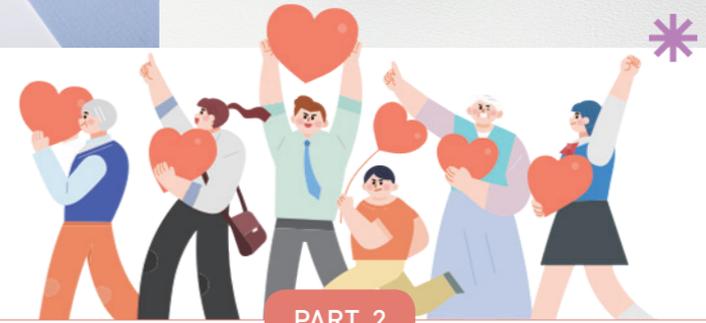
52-3350000-000090-10



2024년 금정 HAPPYZONE 네트워크 사례관리 사례집

# 이웃에게 웃말걸다 토닥토닥 😊





# CONTENTS

2024년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 사례관리 사례집  
이웃에게 말걸다 토닥토닥



## 발간사

## PART. 1

## PART. 2

###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 참여기관 사례관리 실천사례

###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 사업소개

- P. 04 금정구청장 발간사
- P. 05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 대표 발간사

- P. 08 조금 느리지만 따뜻한 동행  
금정구노인복지관 | 김금록 사회복지사
- P. 13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엄마  
금정구드림스타트 | 홍수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 P. 19 화양연화(花樣年華)  
금정구장애인복지관 | 김은아 사회복지사
- P. 27 내일(work)의 희망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 공진희 사회복지사
- P. 36 이웃과 함께 살고 싶은 동네  
금정구중합복지관 | 임미이 사회복지사
- P. 43 그대의 새로움 삶을 응원합니다  
금정구지역자활센터 | 하인이 사회복지사

- P. 48 혼자가 아닌 함께  
남광종합사회복지관 | 김정빈 사회복지사
- P. 54 당당한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 허지희 사례관리사
- P. 61 다시 한번 만발한 꽃을  
부곡1동 행정복지센터 | 김달용 주무관
- P. 64 다시 찾은 미소, 스마일 어게인 :)  
부곡2동 행정복지센터 | 박서현 주무관
- P. 68 다시 되찾은 미소  
부곡4동 행정복지센터 | 권서영 주무관
- P. 71 희망을 선물하다  
장전2동 행정복지센터 | 문경란, 이나리 주무관

- P. 76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란?
- P. 77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 미션·비전·전략
- P. 78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 참여기관
- P. 80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 추진경과
- P. 82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 성과
- P. 84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 자원리스트

•• 기관명 가나다 순입니다.





## 반갑습니다. 금정구청장 윤일현입니다.



•• 2024년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사업성과 공유회 개최를 맞이하여 한해 동안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는 13년째 민관이 협력하여 이어온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로서, 올해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민관이 보유한 자원과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그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역의 복지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한걸음씩 내딛으며 이렇게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 다변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복지와 돌봄의 수요 또한 다양하고 통합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관이 협력한 사례관리는 지역사회 안에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만들어낸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례관리의 성과는 단순한 제도적 지원을 넘어 당사자 중심의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금정 해피존 사무국을 비롯하여 협력기관의 참여로 올해의 결실을 담은 소중한 자료입니다. 각 현장에서 이루어진 우수한 사례들은 단순히 성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역사회와 복지 현장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장 곳곳에서 발로 뛰며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례관리 실무자분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력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신 모든 유관기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금정구는 민관협력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에게 안정된 삶을 지향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주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발맞추어 나가겠습니다.

2024년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집 발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금정구 복지 증진을 위해 네트워크 기관 및 관계자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금정구청장 윤일현



## 반갑습니다.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 대표 조수경입니다.



•• 2024년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사례집 발간 및 성과보고회 개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를 통한 금정구 내 다양한 실천 전문기관들의 참여로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을 위해 연대하는 힘을 경험하며 한 걸음 더 성장하였습니다. 늘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 하는 동료의 힘이기에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시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회는 끝없는 경쟁과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일상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에 대한 관심과 연결 그리고 소통의 기회는 줄고, 장애·교육·질병·이주·노동·권리·의료 등 많은 돌봄의 영역에서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인간이라면 생애주기에 따라 의존의 정도가 다를 뿐 절대적인 의존상태를 겪지 않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상호의존적 존재로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체계의 목적과 그 역할을 통해 돌봄과 관련한 돌봄의 성차별성, 돌봄의 가치 저평가, 돌봄 노동자들의 낮은 처우, 돌봄의 시장화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관여하며, 모두의 '좋은 삶'을 목표로 '함께하는 공적인 것'의 가치 강화에 집중해 보아야겠습니다. 돌봄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그 본질로 하는 '관계재', 즉 '사람과의 관계, 공유 속에서 효용이 더 높아지는 재화입니다. 진정한 우리 이웃의 자립은 '의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존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가치로 하나의 방향을 향해 가는 동료와 함께 더 큰 걸음을 내딛어보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도 함께 해주신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참여 기관 및 종사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2024. 12.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대표 조수경

PART

# 1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

## 참여기관 사례관리 실천 사례

- 01 **조금 느리지만 따뜻한 동행**  
금정구노인복지관 | 김금록 사회복지사
- 02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엄마**  
금정구드림스타트 | 홍수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 03 **화양연화(花樣年華)**  
금정구장애인복지관 | 김은아 사회복지사
- 04 **내일(work)의 희망**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 공진희 사회복지사
- 05 **이웃과 함께 살고싶은 동네**  
금정구종합복지관 | 임미이 사회복지사
- 06 **그대의 새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금정구지역자활센터 | 하인이 사회복지사
- 07 **혼자가 아닌 함께!**  
남광종합사회복지관 | 김정빈 사회복지사
- 08 **당당한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 허지희 사례관리사
- 09 **다시 한번 만발한 꽃을**  
부곡1동 행정복지센터 | 김달용 주무관
- 10 **다시 찾은 미소, 스마일 어게인:)**  
부곡2동 행정복지센터 | 박서현 주무관
- 11 **다시 되찾은 미소**  
부곡4동 행정복지센터 | 권선영 주무관
- 12 **희망을 선물하다**  
장전2동 행정복지센터 | 문경란, 이나리 주무관

•• 이야기 속 주인공 이름은 가명입니다.



# 조금 느리지만 따뜻한 동행

금정구노인복지관 | 김금록 사회복지사

## I. 당사자와의 이야기 1

### .. 영애 할머니와의 첫 만남

남산동에서 오랜기간 홀로 지내신 영애 할머니(가명)은 급격한 인지저하로 2022년부터 금정구노인복지관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올해 7월 사례관리 담당자로 인계받아 처음 만난 영애 할머니는 참으로 무던한 분이셨습니다. 영애할머니는 지금의 삶이 크게 나쁘지 않으니 복지관에서 신경쓸 것 없다며, 덤덤한 태도로 본인의 상황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신경써주는 것은 고맙지만,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병들고 아프면 죽는거지요 뭐...”

영애 할머니를 만나기 전, 전임자가 작성한 상담일지를 읽으며 도움을 줄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으나, 정작 당사자가 도움을 원치 않는다는 발언에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저는 치매 질병의 특성(당시, 치매 진단받지 않았으나 인지기능의 저하로 치매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음)과 해피존 네트워크 사례관리 컨퍼런스의 내용을 찾아보며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례관리 담당자가 변경된 사실을 받아들이고 저에게 마음을 여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애 할머니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분명 생활에 불만족하실거야' '인지기능이 안 좋으시니까 잘 알려주면서 생활을 변화시켜드려야지'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만남부터는 영애 할머니를 돌봄의 대상으로 보는 일방적 상담이 아닌, 일상을 궁금해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관심을 드러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두 달이 지나고 드디어 영애 할머니는 제게 속사정을 들려주셨습니다.

## II. 당사자와의 이야기 2

### .. 영애 할머니의 속사정

영애 할머니는 젊은 시절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아내로서 역할을 하며, 자신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로 인하여 성취감과 행복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독립, 남편과의 사별, 주변 이웃들과의 이별을 겪으면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사실에 많이 외로우셨다고 합니다.

“이 늙은이가 뭐라고 나라에서 도와준답니까... 미안하게 시리...”

일생을 가족의 기쁨을 위해 살아온 영애 할머니가 남은 노후는 스스로를 위해 사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스스로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새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나, 마음이 슬펐던 적은 없으세요?”

“나는 워낙에 건강해서 아프거나 그렇진 않아요..”

올해부터 급격히 나빠진 영애 할머니의 인지기능이 걱정되어 물었으나, 역시 돌아오는 답은 같았습니다.

“건강하니 다행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강히 살기 위해서 우리 치매검사 받으러 가볼까요?”

“나는 그런거 필요없어요... 안 아프다니까...”

만약 치매라면 빠른 진단을 통하여 초기 증상 관리가 필요하였으나 영애 할머니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영애 할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활용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어머님 휴대폰 배경화면은 손주 사진인가요? 너무 이쁘네요.”

“우리 손주 이쁘지요? 이 할매한테 얼마나 잘한다고..”

“손주가 할머니를 참 좋아하네요. 할머니가 오랫동안 건강하면 더 좋아하겠네요.”

“그야 그렇겠지요. 내가 힘들때도 손주만 생각하면 힘이 나요.”

“당장은 안 아프더라도 손주랑 오랫동안 볼 수 있게 예방 차원에서 치매검사 받으려 가볼까요?”

영애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내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요.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도와준다고 하는데.. 검사 받아볼게요.”

손주 생각에 마음이 움직이셨는지 흔쾌히 치매검사를 승낙하셨습니다. 이후 영애 할머니와 함께 일정을 조율하여 치매안심센터의 검사를 예약하였습니다. 이후 어렵게 승낙하신 영애 할머니가 마음이 바뀌시지 않도록 또 다른 소중한 관계인 생활지원사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영애 할머니가 치매검사를 받으신답니다. 제가 동행하여 검사를 할 예정이니,

그전까지 마음 변하지 않게 옆에서 잘 독려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어르신 집에 틈틈이 방문해서 치매검사 받으시라고 꼭 말할게요!”

드디어 검사 당일, 우려와 달리 영애 할머니는 평온한 모습으로 치매안심센터로 동행하셨습니다.

### III. 당사자와의 이야기 3

#### •• 조금 느리지만, 따뜻한 동행

치매안심센터 상담 결과, 인지기능의 저하가 의심되니 병원의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영애 할머니는 병원을 왕복하는 것은 힘에 부치지만, 담당자가 자신을 생각해주는 마음이 고맙기에 검사를 받아보시겠다 답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애 할머니와 병원으로 동행하여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노화로 인한 초기치매이나 가정에서 꾸준한 약물치료와 인지활동을 통하여 어느정도 증상을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소견을 들은 영애 할머니는 옅은 웃음을 지으며, 자신을 위해 애써주어 감사하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아마도 영애 할머니 또한 자신의 상태를 알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후 영애 할머니의 주변 사람들과도 이 소식을 나누며, 영애 할머니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동행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출근일이 아니어도 영애 할머니의 복약 관리를 위해 오며가며 방문하시는 생활지원사 선생님, 영애 할머니의 영양관리를 위해 매주 밑반찬을 전달해주시는 노인일자리 어르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영애 할머니의 인지상태를 살피시는 치매안심센터 선생님, 산책을 좋아하시는 영애 할머니를 늘상 반갑게 맞아주는 아랫집 슈퍼 아주머니, 그 외 주변 이웃분들. 모두 영애 할머니와 조금 느리지만 따뜻한 동행에 참여해주시는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두 자녀를 키우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늘상 모친을 잘 챙기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는 아드님은 남산동에 따뜻한 동행자들이 있어 안심된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십니다. 여전히 영애 할머니는 요금 수납을 깜빡하여 휴대폰이 정지되기도, 오늘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기억 못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즐겁다고 하십니다.

저는 앞으로도 영애 할머니가 오랫동안 사랑하는 손주를 만나고, 좋아하는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행복에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기 원합니다.



응·원·글

#### 기관 응원글

#### •• 금정구노인복지관 부장 이미경

2012년도부터 금정구 복지 유관기관이 모여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이웃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네트워크사업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의료적·정서적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복지·보건·주거·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그들의 위기 극복과 자립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원하는 사업만큼 다양한 영역에서의 관심과 지속활동이 필요합니다.

이에 금정해피존네트워크는 약12년동안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례발굴과 이들의 다양한 어려움과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성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재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복지 유관기관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공동체의 핵심인 주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응원하며 그 활동이 기대됩니다. 올한해 수고많으셨습니다.

해피존네트워크 참여기관 응원글

•• 부산광역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팀장 신영민

사례관리를 하다보면 개입을 거부하는 대상자가 많아 쉽게 포기하거나 개입을 중단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현재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개입에 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영애 할머니 또한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치매 검사가 필요하나 검사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 설득 하는게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김금록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영애 할머니의 손주와 같은 마음과 애정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영애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여 치매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영애 할머니를 챙겨주신 생활관리사 선생님, 반찬을 가져다주신 일자리 어르신, 복약관리를 해준 치매안심센터 선생님, 이웃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영애 할머니를 행복을 찾아 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영애 할머니의 사례를 보며 사례관리는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례관리 담당자의 관심과 애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금록 사회복지사의 영애 할머니에 대한 손주와 같은 마음과 김금록 사회복지사를 손주라고 생각한 영애 할머니의 마음이 서로 통한 따뜻한 사례로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영애할머니의 행복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엄마

금정구드림스타트 | 홍수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I. 당사자와의 이야기 1

•• 천방지축 말괄량이 기쁨이

뚝 떨어지는 단발머리를 찰랑거리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기쁨이는 언뜻 3학년 정도로 보이지만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언니입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키도 작고 말라서 기쁨이의 나이를 제대로 알게 된 어른들은 “기쁨아, 밥 많이 먹어야 많이 크다.”하며 격려해 주십니다.

기쁨이는 체격만 작은 것이 아니라 생각의 깊이도 또래에 미치지 못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기쁨이는 아직 유아기에 많이 하는 역할 놀이를 즐겨워 하니 기쁨이와 놀려는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놀이시설에 갔는데 1학년 동생들도 쉽게 수행해 내는 키오스크 작동법을 이해하지 못해 종일 단 하나의 시설도 이용하지 못하고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독서를 많이 하지만 자기 생각을 말로 조리 있게 표현하지 못하고, 매주 드림스타트 학습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성적은 항상 제자리입니다. 기쁨이는 학교 진학 전, 경도지적장애와 ADHD 진단을 받았는데,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천방지축 말괄량이 기쁨이도 대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학교에 다녀오면 혼자서 간식을 챙겨 먹고 시간 맞춰 학원에 갑니다. 일하는 엄마를 대신해 어린 남동생의 유치원 등하원을 도와 주고, 엄마가 퇴근하실 때까지 동생을 다독여 엄마를 기다릴 줄도 압니다. 그림도 잘 그려서 예쁜 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쁨이의 엄마는 삶에 지친 나머지 기쁨이의 장점은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빠의 폭언과 폭력에서 벗어나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지만 그 돈만으로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려니 매달 생활비 걱정이 태산 같고

설상가상 동생은 뇌전증 진단까지 받아서 엄마의 어깨는 더욱 무겁습니다. 이런 상황에 기쁨이의 어디로 될지 모르는 돌발행동, 어른의 지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듯한 태도,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귀나 배꼽을 파는 집착적인 행동은 엄마를 더욱 힘들고 결국 폭발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수백 번 타일렀는데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쿵쾅거리며 노는 기쁨이를 체벌했더니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말로 해야 하는 걸 알고 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나쁜 엄마가 된 이후 엄마는 체념하는 마음이 생겨 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쁨이와 다투며 아이를 훈육하려는 의욕도 잃고 외모를 비롯해 성격, 모든 행동이 이혼한 아빠를 빼다 박은 것 같아 손조차 잡기 싫은 괴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엄마의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자연스럽게 엄마와 기쁨이의 관계는 나빠져 하루하루 벼랑 위를 지나듯 위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직 기쁨이는 엄마의 다정한 눈빛과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나이인데, 가정에서 점점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만 커져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대드는 기쁨이와 아이가 빨리 자라서 기숙 학교에 진학했으면 좋겠다는 엄마.

또래의 딸을 키우는 엄마이자 사례관리자의 관점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상황입니다.

## II. 당사자와의 이야기 2

### •• 문제 해결의 key는 누구의 손에?

터지지도 못하고 점점 더 안으로 굶어만 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쁨이의 엄마는 일방적으로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되어 안팎으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동안 모처럼의 사회 활동으로 자신의 효용성도 높아진 것 같고, 적지만 수입이 생겨 경제적 스트레스도 줄어들어 엄마의 심리적 휴식처 같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고 자존감에 상처를 받았는데, 5학년이나 되는 기쁨이와 함께 있는 시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지치고 힘든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받아보길 권유하였으나, 이미 상담 경험이 있던 엄마는 상담도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하는 것 같라며 거절하였습니다.

다행히 이성적으로는 기쁨이에게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서 1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쁨이를 꼭 안아줘 보자고 약속하였습니다.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노력해 보겠다고 약속은 했으나 한번 틀어져 버린 감정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해피존 네트워크 사례관리 컨퍼런스가 개최되었고, 기쁨이의 사례가 논의되었습니다. 지적 수준이 낮고 아직 어린 기쁨이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과업을 주기보다 엄마의 고단함을 지지해 주고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III. 당사자와의 이야기 3

### •• 우리 아이 장점 들여다보기

기쁨이는 학교를 마치고 태권도 학원을 가는 것 외에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ADHD 약의 효과가 떨어지고 활동 제약이 다소 느슨해지는 집에서 문제 행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쁨이에게 활동 거리를 만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 드림스타트 지원으로 주1회 1시간가량 학습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더욱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 줄 수 없을까 고민해 본 결과 인근 지역아동센터에 입소하여 공부도 하고 또래 친구도 사귀는 시간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기쁨이네 가정에서 아이 홀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없었으나 인근 지역아동센터에서 차량 운행을 해주기로 하셔서 안전하게 이동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즈음 기쁨이는 여느 또래 친구들과처럼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습 참여는 물론 태권도 학원에서 공인 단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학교 추천으로 예술 영재교육원에 1차 합격하여 2차 실기시험 준비도 한창입니다. 합격 여부를 장담할 수 없지만 기쁨이가 스스로 합격에 의욕을 가지고 혼자서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하게 여겨집니다. 틈틈이 병원에 방문하여 ADHD 관련해 진료도 받아야 하고 기쁨이의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엄마와 기쁨이의 다툼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쁨이의 일정을 함께 챙겨주며 엄마도 기쁨이의 장점을 점차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친정 가족으로부터 경차를 빌려 쓸 수 있게 되어 틈틈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경제적 도움은 적지만 집에서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보다 바쁘게 움직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더욱 좋은 것 같다고 하십니다.

얼마 전 엄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남 하동으로 가을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숙소에서 하룻밤 자고 오는 게 전부였지만, 아이들도 신나 하고 엄마도 모처럼의 여행으로 스트레스가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기쁨이의 행동에 가슴을 맞대고 안아주며 다독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엄마와 기쁨이 마음의 상처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는 산만한 아이 양육 방법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5년 가량 경도 지적장애와 ADHD라는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왔지만, 기쁨이에 대한 어머니의 높은 기대치를 조정하고 산만하고 말 안 듣는 자녀에 대한 올바른 양육 태도를 다시 한번 짚어보기 위함입니다.

엄마와 딸. 서로의 속마음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가 아닐까요? 기쁨이와 엄마도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에서 벗어나 위안과 진정한 기쁨을 주는 건강한 관계로 다시 돌아가길 응원합니다.



응·원·글

### 기관 응원글

#### .. 금정구청 가족정책과 주무관 허한

우선 기쁨이를 포함한 세 가족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 느껴졌습니다. 그중 어머니는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면서도 두 아이를 양육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 것입니다. 특히 기쁨이나 남동생 모두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서 더욱 큰 양육 스트레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역할을 하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두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에서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는 아동뿐 아니라 가족 역시 사업 대상자이므로 이럴 때일수록 가정에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기쁨이네 가족의 입장을 살피면서 필요한 자원을 잘 연결해 주고 그것이 새로운 계기가 되어 기쁨이가 혼자서 해내는 역할이 하나씩 더 늘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이가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하기를 많은 분들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 해피존네트워크 참여기관 응원글

####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복지조정자 안현옥

기쁨이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 희망의 싹을 본 것 같아 따뜻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일 엄마와 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처받고 있다는 점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며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기쁨이가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태권도 학원에서 공인단 시험을 준비하고, 예술 영재교육원 실기시험에 도전하는 기쁨이의 모습이 정말 대견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스스로 욕심을

내어 도전하는 기쁨이의 태도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쁨이의 어머니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아이들과 여행을 다녀오며 삶의 활력을 찾아가는 모습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쁨이의 스케줄을 챙기며 조금씩 딸의 장점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하는 등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위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셨을지 같은 사회복지사로서 조금은 짐작이 되어 그 수고에 대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엄마와 딸이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쁨이와 어머니는 지금 서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비록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 여정 끝에는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기쁨이와 어머니의 앞으로의 날들이 따스한 햇살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 화양연화(花樣年華)

금정구장애인복지관 | 김은아 사회복지사

### 1. 당사자와의 이야기 1

#### •• 근묵자흑(近墨者黑): 나쁜 영향을 받기 쉬운 환경에 있으면 점점 그 특성을 닮게 된다.

2023년 9월, 담당자 변경 후 인사를 드리기 위해 가온 님의 집에 방문했다. 가온 님은 화장실도 없는 한 평 남짓한 작은 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

집 문을 열자, 가온 님은 평소 좋아하시는 소설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시력도 좋지 않아 나의 방문 소리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놀라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가온 님, 금정구장애인복지관에서 왔습니다.”

안 들려서 몰랐다면 깜짝 놀라 손으로 귀를 가리켰다. 우리는 그렇게 처음 만났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김은아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반갑게 인사를 나눴지만,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대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대체로 말을 많이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내 이야기가 잘 들릴 수 있게 자리를 바꾸고, 목소리를 천천히, 그리고 크게 내가며 이야기를 나눴다.

“선생님 소리는 잘 들리네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 잘 안들리고, 소통이 잘 안되서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 한마디에, 가온님은 나에게 '말 한마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낀 듯' 보였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가온님은 자신의 책과 같은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줬다.

가온님은 젊은 시절, 건강하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했다. 그러나 가족들을 위해 일만 하고 살아온 시간 동안 본인 스스로는 돌보지 못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건강이 좋지 않아지면서 일을 그만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삶이 무기력해졌고, 이때부터 술에 의지하게 되었고 가족과도 멀어졌다고 한다. 홀로 외로운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다고 한다. 그때부터 삶의 의지를 잃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 사람들까지 점점 더 멀어졌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고통을 겪으셨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가온님은 자신을 이해해 주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 같다. 어쩌면 술과 함께 지낸 과거의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책을 보듯 천천히 들어줄 사람을 기다린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이 만남은 단순히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는 인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가온님에게 있어, 이 만남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소통의 기회를 되찾는 중요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 II. 당사자와의 이야기 2

### •• 괄목상대(刮目相對): 눈을 비비고 상대편을 본다.

가온님은 처음에는 사람들과 소통의 어려움으로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매주 한 번 가온님 집을 방문해 밑반찬을 지원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가온님은 담당자와 대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낀 것 같다. 처음 대답도 잘 하지 않고 소극적이던 대화는, 어느덧 필담을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변했다.

가온님은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더 이상 외롭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았고 우리가 만났다. 기존 생활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자는 의지를 가지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기존의

생활을 바꿔보겠다고 결심했다. 한때 술에 의존하고 삶에 의지가 없었던 가온님은, 작지만 중요한 도전을 시작했다. 그 도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목표를 세운 뒤, 작지만 천천히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었다. 목표를 정하자, 가온님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고, 자신감을 얻었다. 그 자신감은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졌다. 하루는 담당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선생님 이번에 요트 타러 가봅시다. 복지관 덕에 살면서 요트도 타보고 좋겠네요.”

스스로 참여할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나누었고, 프로그램 홍보지를 달력에 붙여 날짜를 표시하며 스스로 기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옹호 활동에도 참여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프로그램이 시작되던 날, 가온님은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에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온이라고 합니다. 제가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이야기를 잘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가온님의 용기를 격려하며 박수를 보냈다. 또 다른 변화가 생겼다. 가온님은 그동안 누군가가 집에 오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담당자가 오는 시간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그 기다림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다시 찾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온님은 더 많은 도전과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스스로 술을 줄이는 모습도 보였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임대 아파트 신청 등을 용기 내어 신청했다. 정서적인 상담과 생활 지원을 받으며, 가온님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다.

가온님은 이제 이렇게 말한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지는 않지만, 점차 변해가는 모습을 발견한다. 가온님을 만날 때면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할 때가 많다.

### III. 당사자와의 이야기 3

#### •• 삼고초려(三顧草廬): 인내심을 갖고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가 따르겠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의 길은 결국 스스로 찾아야 한다. 예지몽을 꾸듯 암담한 미래를 예측했던 가온 님. 하지만 이는 예지몽일 뿐 바꾸는 건 본인의 몫이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오는 게 불편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예전 가온 님은 일을 하기 싫어하고, 사람들과 만남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꾸준한 노력 속에서도 살아온 세월이 있어 큰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천천히 꾸준하게 변화하는 모습이 보인다.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제는 스스로 알고 있다.

“선생님, 신청한 임대 아파트 선정 안 되겠죠?”

“선정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임대 아파트 종이를 매일 보고 있어요.”

“노력하는 만큼 결과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 작지만 간절한 마음을 이제는 나와 나눈다. 하지만 아쉽게도 꼭 필요한 사업들이 선정되지 않았다. 그 사실이 가온 님 스스로 다시 실망하고 무너질까 봐 전달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결과는 안내해야 하기에 나는 가온 님의 집을 방문했다. 담당자를 보자마자 물었다.

“결과가 좋지 않지요?”

담당자는 선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가온 님은 담담하게 말했다.

“어차피 잘 안될 거 알았어요. 근데 다음에 또 하면 되죠.”

가온 님은 실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긍정적으로 다음 기회에 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가온 님의 그 모습에 조금 놀랐다.

“가온 님. 지금까지 잘 해왔고, 더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가온 님의 변화만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같이 행복을 찾아 노력해 보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들은 가온 님의 눈에는 따뜻한 봄비가 내린 듯 촉촉해졌다. 나는 그동안의 노력과 변화가 빛을 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가온 님 스스로 노력의 아쉬움과 도전 의지로 보였다. 그 후, 가온 님은 주거 환경 지원사업에도 선정되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젊은 시절, 치열하고 암흑 같던 시간을 지나온 가온 님은, 이제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서고 있다.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도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노력해 보지도 못했고,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가온 님이지만, 이제는 삶의 방법을 만들어가고 있다. 홀로 버티던 차가운 겨울 같은 인생 속, 얼어버린 마음의 땅을 스스로 일구고 있다. 이곳에 어떤 꽃을 심을지는 가온 님의 몫이다. 나는 그저 따뜻한 봄비일 뿐.

삼고초려. 과거 유비가 제갈공명이라는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듯, 가온 님도 새로운 삶을 맞아들이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마음과 정성을 다할 차례이다. 오늘도 소설 같은 인생을 살아온 가온 님이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응원한다.



응·원·글

기관 응원글

●● 금정구장애인복지관 관장 김은영

혼자 집에서 소설책을 즐겨 읽으며 사회와의 교류가 적었던 가온님은 어느 날 김은아 사회복지사와의 만남을 계기로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사람들과의 소통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온님은 점차 마음을 열고,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변화를 이루기 위한 목표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김은아 사회복지사님의 꾸준한 지원과 소통 덕분에 가온님은 변화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시력이 좋지 않은 가온님이 사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은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온님이 마음을 열고 사회와 교류를 시도한 것은 사회복지사와 가온님의 끊임없는 노력과 교감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소통과 신뢰가 결국 가온님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금정구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도 가온님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가 지역사회와 더욱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가온님이 사회에서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또한, 가온님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가온님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온님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기관 실무지원단(금정구장애인복지관 팀장, 우종석)

가온님, 정말 멋진 변화의 여정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담당자로서 짧은 시간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가온님의 모습에서 진정한 용기와 희망을 느낍니다. 가온님, "어차피 잘 안 될 거 알았다. 근데 다음에 또 하면 되지"라고 하신 그 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실패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세가 정말 멋집니다. 그 변화는 단지 외적인 결과가 아닌, 가온님이 자신을 믿고,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기에, 그 과정 자체가 이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든 순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온님은 분명히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노력과 마음가짐이 결국 더 큰 기회와 희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희는 가온님이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믿고,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가온님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해피존네트워크 참여기관 응원글

●● 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팀장 박지혜

아픈 과거로 인해 술로 자신을 위로하고자 하였으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오히려 자신을 더 궁지에 몰아넣게 된 대상자셨네요. 알코올 문제가 발생하여 만성화되는 동안 당사자만 서서히 병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병들어가게 됩니다. 부부 중 한쪽 배우자에게 알코올 문제가 발생하여 악화되어 가면 부부 간 불화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슬하에 성장기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에게는 크나큰 마음의 생채기를 남기게 됩니다. 아마도 남편분이 자녀들을 지켜내기 위한 방편으로 마음 아픈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가족과 이별 후 외로움과 고독으로 더욱 술을 가까이에 둘 수밖에 없어 고립된 생활은 가중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생활을 하시던 중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선생님께서 자주 방문하시고, 라포를 이끌어내신 덕분에 사람들로 부터의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를 지금은 조금씩 회복해 나가시게 된 것 같네요.

지역 중독기관이나 병원에서 치료 기술로 인지행동치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치료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되 치료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필두로 회복을 목표로 정진하는 다른 대상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감 자체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성적 알코올중독 대상자들에게 인적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은 대단히 회복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떨때는

치료전문가보다 대상자들간의 자조적 관계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되기도 하구요. 많은 인적 자원들이 회복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붙잡아 줄수록 그 분은 더욱 단단히 회복해나갈 수 있고, 재발을 하더라도 빠른 기간 내에 원래의 자리로 회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초반 가정방문을 통해 대상자가 담당자와 라포가 단단해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담당자분께서 대상자에게 최선을 다하셨기에 대상자께서 복지관 이용을 통해 대인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상자님께서 더 이상 외톨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함께 해나감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재발견해나가는 앞으로의 여정이 되실거라 믿어의심치 않게 되네요.

한해 동안 너무 수고많으셨습니다. 대상자분과의 귀중한 인연을 읽으며 또 한번 우리가 하는 일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게 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내일(work)의 희망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 공진희 사회복지사

### I. 당사자와의 이야기 1

#### •• 다시만난 인연

희망님과 저는 2016년, M병원 정신재활시설 낮 병원에서 인연이 닿았습니다. 당시, 희망님은 직업을 갖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취업적응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직업재활반 담당자가 아니었던 저와 교류는 많지 않았지만, 희망님을 보면서 느꼈던 이미지는 묵묵하게 본인이 맡은 작업을 수행하시며, 작업반의 반장을 맡을 정도로 책임감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2년 간 희망님과 인연이 이어지다, 저의 퇴사로 인해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2019년 9월,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입사하게 되면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희망님을 1년 7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희망님! 오늘은 새로운 담당자랑 방문 왔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낮 병원에 계셨던 선생님이시네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저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니 놀란 눈으로 박수를 치며 반가워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희망님의 모습은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살이 많이 빠져있었고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희망님 낮 병원은 잘 다니고 계신가요?”

“아니요. 보듬자리(정신질환자주거시설)에서 독립한 이후로 안 나가고 있어요.”

희망님은 2년간 정신질환주거시설에서 생활하다, 병동에서 알고 지냈던 여성분과 동거를 하기 위해 영구

임대 주택을 스스로 신청했다고 합니다. 동거인은 희망님과 같은 조현병 진단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가족도 없고 보살펴줄 사람 하나 없는 동거인이 자신과 닮아있다는 생각에 함께 살기로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동거인의 인지기능 매우 약화되어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희망님이 하루 중 상당시간을 보살펴야하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희망님을 만나 낮 병원에서 함께 한 추억, 기억들을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흘렀습니다.

“선생님이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깐 작업을 하던 때가 그리워지네요.

그때는 바쁘고 힘들어서 안 하고 싶었는데.. 막상 지금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제 자신이 멍청해 보이고 한심하네요. 일은 하고 싶은데 나이가 많아서 여기저기 아프고... 동거인도 보살펴야하고..”

희망님은 자신의 나이와 신체 건강상태를 고려했을 때 일을 다시 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희망님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작업장이 있다면 취업하여 직업을 유지하고 싶은 의지를 표현하였습니다. 이에 취업준비에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알아보고 일자리연계 및 취업준비, 직업재활 서비스를 탐색하기로 했습니다.

## II. 당사자와의 이야기 2

### •• 취업을 위한 첫걸음

희망님은 중학교 중퇴 후 세공을 배워 18세부터 약 6년간 세공사로 근무하였으나,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타 업장 세공사와의 과도한 경쟁으로 미래가 불분명하다는 생각에 퇴사를 하셨으며, 이후 건설 현장에서 철거업무를 하다 28세 경, 조현병이 발병하셨다고 합니다.

발병 이후 21년간 입·퇴원을 반복 하였으며, 약 6년간 B병원 병동작업장에서 단순 포장업무를 한 경험이 있고 퇴원 후에도 M병원 낮 병원 작업장에서 단순포장 업무 경험이 있습니다.

“병동생활을 20년 넘게 하다 보니 세상 물정도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사회가 돌아가는지도 잘 모릅니다.

병원에서 단순포장 업무 밖에 안 해본 제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희망님은 긴 병동생활로 인해 원활한 사회활동 및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60대의 나이, 신체건강 상태, 경력단절 등으로 다시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취업을 하더라도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취업을 위한 첫 단계 일상생활, 자기관리, 직업재활, 사회기술 4가지 주제로 영역을 나눠 계획 및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희망님은 현재 정신과적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었지만, 심리적 결핍을 가진 채로 사회에 복귀하며 살아가고 있고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대화기술, 경청 및 명료화기술, 자기주장훈련을 위해 본 센터에서 2년간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들을 교육하여 스스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 전 단계, 취업 후 적응 단계로 나누어 상, 하반기 10회씩 프로그램 참여하는 등 취업을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셨습니다.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듣고 나면 일하고 싶은 욕구도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 나이에? 정신질환이 있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다리랑 어깨가 아파서 버틸 수 있을지 걱정돼요. 그리고 취업하게 되면 수급비도 줄어든다고 하던데.. 제 상황에 취업을 준비하는 게 맞는지 또 고민이 되네요.”

희망님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취업에 대한 욕구와 자신감이 높아진 모습 보였지만, 현실적인 문제와 부딪히면서 적극적인 취업준비에 계속해서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셨습니다.

## III. 당사자와의 이야기 3

### •• 내일(WORK)을 위한 도전

취업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희망님을 위해 취업에 대한 대상자의 욕구,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다시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60대 이상 연령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업무면 좋겠어요.”

“하루 5시간미만 근로시간과 출퇴근 왕복 2시간 미만이면 좋겠어요.”

“관절염이랑 오십견 때문에 다리와 어깨에 너무 무리가 가지 않는 업무였으면 좋겠어요.”

희망님의 욕구를 반영하여 희망님 거주지에서 15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직업재활전문시설 두 곳을 알아보았고 정신장애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희망님은 두 기관 모두 등록 조건에 부합했습니다. 두 기관 모두 관내 다수의 작업장 보유 중이었고 희망님의 욕구와 기능에 맞는 작업장으로 연계가 가능했습니다. 희망님은 두 기관 모두 관심을 보였으며, 기관 담당자와 조율 후 ○직업재활센터 방문을 계획했습니다.

“직업재활 프로그램에서 들어만 봤지 직접 센터를 방문하게 되니깐 감회가 새롭네요.”

“잘하면 일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걱정도 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희망님은 직업재활 기관에 방문하여 담당자로부터 취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와 연령별 취업 현황에서 50대 이상이 4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듣고, 60세가 넘는 나이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등록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정원 초과로 대기만 가능한 상황이며, 최소 1년 이상 대기 가능성을 안내받고 아쉬움을 표현하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희망님은 등록대기보다는 당장 다른 구직을 하고 싶음을 표현하여 ○직업재활센터 담당자로부터 부산장애인고용공단에서 기획중인 '장애인 일 경험 프로그램' 정보 제공 받아 참여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이틀간 임시고용지원에 연계되어 종이 가방 접기 업무를 수행했으며, 과거 병동 내 작업장과 낮 병원 직업재활 반에서 해본 경험이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해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짧은 근무일수가 너무 아쉽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충분히 나도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직업재활센터를 통한 취업이 아니더라도 구직 사이트를 이용해 계속해서 꾸준히 도전해보려고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IV. 당사자와의 이야기 4

##### •• 일하는 행복, 이제 나를 위해 일하자!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 역 앞에서 나눠주는 전단지에서 '장애인 수업이 가능한 부산에서 몇 안 되는 금정직업전문학교'라는 문구를 보고 스스로 방문을 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사무행정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였으며, 수업 이후 알선을 받아 취업에 도움을 준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뭐라도 배워서 취업을 준비하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컴퓨터를 만져본 적도 없어서 걱정이 되지만... 배움이라는 자체가 설레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희망님은 취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취업에 필요한 부분들을 스스로 채우고자 계속해서 도전하는 모습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금정직업전문학교를 다니며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주기적으로 치는 시험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다고 하였으나, 6개월 동안 교육과정을 희망님은 보란 듯이 해냈습니다. 앞으로 지금처럼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든 잘 해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24년 7월, 낮 병원에서 알고 지냈던 지인이 일하고 있는 근무지(장애인일자리 연계)에서 갑자기 그만 두게 된 사람이 생겼으며, 평소에 일을 하고 싶어 하던 희망님이 생각나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근무지는 희망님 거주지에서 30분 이내였고 3-4시간 정도의 지하철 내 청소업무라고 했습니다. 근무시간이 길지 않아 동거인을 보살피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여 당장이라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온 좋게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일하고 있는 친구가 부러워서 너가 하고있는 일 내가 하고 싶더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자리가 나자마자 바로 전화 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고마운 만큼 진짜 열심히 하려고요.”

어느덧 희망님은 4개월째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건강하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다가 하니깐 힘들고 피곤하지만 이 피곤함마저 감사하게 생각되더라고요.

35년 만에 직업을 다시 가졌고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번다는 자체가 저한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나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 할 겁니다.”

오랜 병동생활로 인해 위축된 자존감으로 그동안 스스로 인식하기 못했던 자신의 가능성을 재발견한 계기가 된 것 같아 담당자로서 너무 기쁘고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서 행복하다는 희망님!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희망님!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세상 속에 스스로 나온 희망님의 용기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응·원·글

### 기관 응원글

#### ••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김상희

응원 글을 쓰려고 하면서 문득 과거 사례관리를 하면서 직업을 구한 대상자가 자기도 이제 국가에 도움만 받던 입장에서 당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게 되어 국민으로서 국가의 일원이 되는 것 같아 기쁘다고 했던 대상자의 행복했던 표정이 떠오릅니다.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대부분 사회에서의 고립과 지역사회 복귀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불편감과 더불어 구직의 어려움과 삶에서의 여러 번의 거절과 좌절의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대상자를 지지하고 함께 일상의 복귀를 위한 사례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서 대상자들과 사례관리자들은 지칠 수도 있고 쉬운 선택만 반복하거나 도전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무엇보다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은 대상자 자립의 성공을 지켜보게 되는 일 같습니다.

희망님은 사회적인 편견과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직업을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에서 대상자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상자를 옆에서 격려하고 도움을 주신 사례관리자의 긍정의 힘도 함께 느껴집니다. 20년 넘는 치료기간에도 구직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직업을 유지하게 된 희망님, 그리고 희망님 옆에서 항상 격려하면서 속도를 맞추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 공진희 선생님, 두 분의 만남은 참 좋은 인연이었네요.

희망님, 공진희 선생님!! 두 분의 첫 만남은 병동에서 치료중인 환자와 치료자로서 만나게 되었지만 이후 지역사회에서 다시 사례관리자로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이 지역사회로의 복귀의 첫발을 내딛는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니 더욱 의미 있는 만남이 된 것 같습니다. 일하는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 희망님, 이제 그 행복의 길을 천천히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사례관리자 선생님과 함께 흐뭇하게 응원합니다!! 파이팅!!

#### ••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팀장 이영표

‘희망님’과의 만남과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 영역의 증상관리에서 시작하여 직업재활로 발전시킨 공진희 선생님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선생님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 내담자와 건강하고 이상적인 관계를 형성하신 것 같아서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희망님’의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관리하고 일상에서 지속적인 직업활동을 영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회원님들이 ‘희망님’ 사례를 모델링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피존네트워크 참여기관 응원글

#### •• 부산광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팀장 김귀임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광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팀장 김귀임입니다. 이번에 저는 ‘내일(work)의 희망’이라는 사례 글을 읽으며 희망님의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계속 도전하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희망님이 공진희 사회복지사님과 한 때의 인연이 다한 후 다시 사례관리자와 대상자로 만나게 된 것이 정말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지 않은 나이와 건강하지만은 않은 신체 상태를 생각

했을 때 다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은 희망님을 위해 취업준비에 필요한 부분을 함께 알아보고, 일자리 연계 및 취업준비, 직업재활 서비스 탐색을 시작 한 점, 취업을 위해 일상생활, 자기관리, 직업재활, 사회기술의 4가지 주제로 영역을 나누어 목표를 설정한 점, 희망님을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여 대화기술, 경청 및 명료화 기술, 자기주장훈련을 경험하게 한 점,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희망님의 취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신 점 등 공진희 사회복지사님이 희망님의 취업을 위해 얼마나 고민하여 노력을 하셨는지 잘 알 수 있었고 희망님 옆에 공진희님이 계셔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례 글을 읽으며 희망님이 걸어오신 삶을 접하고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셨는지 중학교 중퇴 후 현장에서 세공사 일, 건설현장의 철거일을 하게 되었고... 그 어린 나이 28살에 조현병이 발병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우셨을까요...

발병 이후 오랜 시간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도 병동작업장에서 포장 업무를 하는 등 생활을 스스로 꾸려가려는 삶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긴 병동생활로 인해 사회활동과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취업에 대한 욕구와 자신감을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와 부딪히면서 적극적으로 취업준비를 고민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장애인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종이 가방 접기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직업전문학교를 다니며 사무행정과 관련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를 배우기도 하는 등 취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취업에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채우려 도전하는 모습에 어느 순간부터 저도 지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응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지만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했다는 내용을 읽었을 때 저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주지에서 30분 이내 거리이며 근무시간이 길지 않아 동거인을 보살피는 것이 가능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에는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희망님.

직장생활을 하신지 벌써 4개월이 되었군요. 어떠신가요? 힘들진 않으신지요?

많은 노력과 오랜 기다림 끝에 직장생활을 하게 되어 힘든 일이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희망님은 잘해내시리라 생각해요.

그 동안 쪽 그래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일을 하실 것이고 누군가는 희망님의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며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고 살겠다는 의지와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희망님.

그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는 동거인과 함께 손을 꼭 잡고 바람이 살랑거리는 공원을 걸어보세요. 얼굴을, 머리를 스쳐가는 계절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마음 가득 행복이 밀려 올 거예요.

저는 희망님의 적극적인 자세와 도전하는 모습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에서 실천하려 노력하겠습니다. 희망님의 앞날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이웃과 함께 살고싶은 동네

금정구종합복지관 | 임미이 사회복지사

### I. 당사자와의 이야기 1

#### ••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젊으니 일해서 돈 벌면 됩니다. 이런 도움 필요 없습니다.”

유석 씨를 의뢰한 이웃은 유석 씨가 어제도 배고프다며 집 앞 슈퍼에서 라면을 빌려 갔다고 했는데 유석 씨는 복지관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석 씨는 정신질환으로 기초생활수급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전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다며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스스로 취소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석 씨의 머리카락은 덩수룩해졌고 밤마다 누구를 향하는지 모르는 고성방가가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유석 씨는 필요 없다고 하였지만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먹을거리를 들고 찾아옵니다.

“앞집에 외숙모가 삽니다. 아주 위험한 여자입니다. 조심하세요.”

“어제는 수간호사가 우리 집 앞에 한참 있다가 갔어요. 제 친구가 줄에 묶여 있어요.”

“지금 제가 줄에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줄이 풀리면 일하러 갈 거예요.”

“저는 순복음의 계시를 받았습시다. 영화배우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주 찾아가는 담당자가 익숙해졌는지 유석 씨는 담당자에게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집에는 유석 씨의 외숙모가 살지 않았습니다. 유석 씨가 하는 말에 수긍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네요. 식사하셨어요? 내일은 뭐 하실 예정이세요?”

유석 씨의 생각을 현실로 데려오도록 질문을 드렸습니다. 유석 씨는 그 질문에 잠깐 대답했다가 다시 자신의 괴로움에 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유석 씨와는 긴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석 씨를 돕기 위해 유석 씨에 대해 알아야 했습니다.

### II. 당사자와의 이야기 2

#### •• 착한 아이 유석 씨

유석 씨가 자주 식료품을 빌리러 가는 슈퍼에 들렀습니다. 유석 씨는 동네에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쪽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애는 착한데 약을 안 먹어서 그렇다. 누가 병원에 데리고 가면 좋겠다.”

고령의 슈퍼 사장님은 유석 씨를 어린 시절부터 봐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석 씨가 식료품을 빌리러 오면 그냥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유석 씨 집에 전기와 수도가 모두 끊겼는데 슈퍼 건물 옆에 있는 수도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슈퍼 사장님을 통해 유석 씨를 돕기 위해 애썼던 이웃을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기름 집, 금은방 가게, 속옷 가게 사장님 모두 유석 씨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계속 돕고 계셨습니다. 사장님들은 한목소리로 유석 씨를 ‘착하다’고 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통장님이었다. 동네 사람들 다 알지. 지나가다가 보면 인사는 꼬박꼬박 잘한다.”

“한 번씩 소리를 지르긴 하는데 애는 착하다. 약 먹을 때는 잘 지냈다.”

“3, 4년 전에 병원에서 치료 끝났다고 오지 말라 했다네.”

유석 씨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셨습니다. 외삼촌이 있지만 관계가 단절되어서 어디에 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유석 씨가 이전에는 약 복용을 잘해서 직장생활도 했었는데 4년 전부터 병원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정신과 증상이 점점 심해졌고 지금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석 씨를 돕고자 애썼던 이웃들은 유석 씨의 돌발행동이 걱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집에서 살면 없던 병도 걸릴 거다.”

“집을 고쳐 주고 싶은데 지가 안 도와줘도 된다고 계속 그러니...”

유석 씨만 도와달라고 한다면 단전, 단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지만 유석 씨가 도움을 모두 거부하니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유석 씨에 대해 얻은 정보로 복지관, 행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도움 방법을 의논하였습니다. 유석 씨가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취소해 소득이 전혀 없어 유석 씨를 설득하여 긴급생계비 신청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유석 씨와 어떻게 대화하고 유의 깊게 살펴야 하는지 자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석 씨가 동의하면 유석 씨를 만나 치료를 독려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담조차 거부하는 유석 씨의 치료를 진행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석 씨의 사정을 잘 아는 이웃들을 만나 유석 씨가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을 하면 유석 씨를 위해 경찰에 신고하도록 당부드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꺼려진다면 복지관에 연락을 주시면 대신 신고하겠다고 안내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느날 유석 씨가 슈퍼에 찾아와 계속 소리지르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슈퍼 앞으로 갔습니다. 경찰이 와 있었습니다. 유석 씨를 위해 응급입원을 요청했지만 유석 씨가 누군가를 헤치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입원 요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지구대, 이웃과 함께 입원시킬 방법이 없는지 의논하였습니다. 여러 기관이 머리를 맞췄지만, 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과 없이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행정복지센터에서 유석 씨가 정신과 외래진료를 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구대에서 요청한 덕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유석 씨의 동의 없이도 유석 씨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유석 씨를 설득하여 외래진료를 받았고 약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이웃들은 유석 씨가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는 과장된 소문에 들떠 있기도 했습니다. 이웃들은 유석 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도배, 장판도 하고 살림도 바꿔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유석 씨가 약 복용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웃들은 유석 씨의 더 나은 삶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 III. 당사자와의 이야기 3

#### •• 저는 이 동네가 좋습니다.

드디어 유석 씨의 행정입원이 진행되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선생님이 유석 씨의 주거상황을 담당 주치의에게 사진으로 전달하며 유석 씨의 자기 방임 상황을 알린 덕분이었습니다. 유석 씨가 입원한 지 두 달쯤 되었을 때 유석 씨를 면회했습니다. 드디어 만난 현실을 살아가는 유석 씨는 주거지를 수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유석 씨에게 이사가는 것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저는 이 동네가 좋습니다. 이웃들도 좋고요. 거기서 살 겁니다.”

유석 씨의 요청에 주거지 수리를 진행할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석 씨의 소식을 알리자 슈퍼 사장님은 유석 씨가 입원 한 3개월 동안 집을 고쳐서 유석 씨가 돌아오면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유석 씨의 집 고치기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이웃들을 만나고 주민자치 위원들을 만났습니다. 이웃들은 돕고자 하였으나 정작 집주인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유석 씨의 집 등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법적으로 집주인이 없는 무허가 집이었습니다. 계약서가 있지만 그 계약서 속의 집주인이 잠적한 상황이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주무관과 함께 주민들의 입소문을 따라 집주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다른 도시의 어느 동네에까지 집주인을 찾아다녔지만, 집주인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유석 씨가 곧 퇴원할 텐데 걱정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랐던 유석 씨의 치료가 진행되었고, 이제는 유석 씨가 이렇게 자신을 아껴주는 동네에서 이전처럼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주거상황에 대한 자문을 듣고 행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주민을 만나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다행히 법적으로 집주인을 찾지 못해도 유석 씨가 있으면 주거지 수리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유석 씨가 현장에 있어야 했습니다. 유석 씨가 퇴원하게 되면 수리를 진행하기로 하고 그전까지 동네의 자원을 열심히 알아보고 합의해 놓기로 하였습니다.

유석 씨는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합니다. 처음 퇴원 심사 때 입원기간이 3개월 연장되었던 것이 이번에는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유석 씨가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더 안정되게 생활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유석 씨가 퇴원하는 날을 동네 이웃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석 씨의 꼬마시절을 함께했던 이웃들이 40대지만 여전히 '착한 아이' 유석 씨가 지금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해 줄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복지관도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응·원·글

#### 기관 응원글

#####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오성균

유석 씨를 돕기 위해 묵묵히 발걸음을 내디딘 이웃들의 진심 어린 노력이 가슴 깊이 울립니다. 유석 씨가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체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거부하는 유석 씨를 존중하며 끝까지 손을 놓지 않은 기관들과 어린시절부터

유석 씨를 지켜봐 주신 따뜻한 이웃들이 있었기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 이웃들의 꾸준한 관심과 마음은 유석 씨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을 찾고 다시 자신의 삶을 일구어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종종 작은 관심과 연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석 씨의 삶이 바뀌는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을 돕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는지를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연대와 사랑이 유석 씨에게도 전해졌으리라 믿습니다.

유석 씨가 치료를 잘 받고, 다시 이웃과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유석 씨와 동네 주민들,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의 다양한 시설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공동체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앞으로도 유석 씨를 향한 많은 이들의 응원과 사랑이 계속되기를 희망하며, 유석 씨의 삶에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과장 신대승

'나의 독산동'이란 그림책에 은이라는 꼬마가 등장합니다. 공장이 있는 동네라 시끄럽고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니라고 학교 선생님은 표현했지만 은이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은 부모님들의 일터이기도 하여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집에서 가족과 동네 어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생활권이 그 동네가 되는 곳,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라고도 표현합니다.

유석씨가 어렸을 적부터 살았던 이 동네가 독산동의 이미지와 어우러집니다. 이곳은 유석씨에게 익숙한 공간이며 친근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동네입니다. 물리적으로 나은 환경보다 이 동네에서 살아가는 것이 유석씨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례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자원이 생기면서 짧은 시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게 상황이 일시적으로 호전될 수 있지만 그 후의 삶은 온전히 주민 스스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는대로 받기만 하였지 살아가기 위한 힘을 기르진 못한 것입니다. 유석씨의 사례를 보면 복지관이, 지역 내 기관이 없더라도 주변 이웃들과 함께 관계하며 온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리님의 방향성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이 동네는 40년 전 꼬마를 다시 돕기 위해 모두가 마음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바로 대리님입니다.

## 해피존네트워크 참여기관 응원글

.. 금정구보건소 주무관 김지혜

이웃과 함께 살고 싶은 동네라는 사례를 쪽 읽어보고 여러 기관과 사람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애써서 유석 씨를 돕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행정 입원으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유석 씨가 퇴원 후에도 이 동네에서 더 잘 살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님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변호사, 이웃들 모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동네라서 유석 씨는 계속 이 동네에 살고 싶은가 봅니다.

금정구종합복지관 임미이 사회복지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웃의 의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관과 도움 방법을 논의하고 무엇보다 유석 씨를 설득해 치료와 주거지 수리 요청을 받아낸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유석 씨가 치료를 끝낸 뒤 나와서 안정된 생활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그대의 새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금정구지역자활센터 | 하인이 사회복지사

### 1. 당사자와의 이야기 1

#### .. 월요일, 불안한 시작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무사히 주말을 보내셨기를 바라며 출근한 월요일 아침,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다운(가명)님이 출근하지 않으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운님은 50대 초반으로 독거 생활을 하며 고시원에서 지내고 계셨고,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몸이 좋지 않으셔서 몇 번 결근하셨지만, 그때마다 상태를 빠짐없이 알려 주셨던 분이기엔 갑작스러운 결근 소식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운님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으나 응답이 없었고, 혹시 주무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몇 차례 더 시도했으나 끝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상 이렇게 성실하신 분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는 신변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연락망에 있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께서는 아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불안감을 드리고 싶지 않아 짧은 인사만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지역자활센터 내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다운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했으나 관리인은 이미 몇 달 전에 이사 가셨다고 했고, 이웃 주민들도 거처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불안함이 커져 구청 생활보장과와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부서 등을 찾아 다운님의 소재를 수소문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현재로선 신변 확인이 어렵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경찰 신고를 염두에 두고 계속 전화를 시도하던 중, 마침내 다운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고열로 정신을 잃어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하며 현재 어머니가 계신 타지역에 있다고 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염려되어 병원 방문을 권유드렸고, 어렵게 동의를 구해 그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 II. 당사자와의 이야기 2

### •• 갑작스러운 의료적 위기와 지원

다운님의 거처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니 한참 뒤에야 힘없는 걸음걸이로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마주한 다운님의 모습은 마치 전혀 다른 분 같았습니다. 기운이 빠진 얼굴과 바싹 마른 모습이 눈에 띄었고, 걸음걸이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다리 상태를 살펴보니 오른쪽 발등에 감겨 있는 붕대가 진물과 고름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열로 인해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하셨으나, 급성 당뇨로 인한 염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운님을 설득하여 근처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다리를 보여드리자 심각한 상태임을 진단하시며, 급성 당뇨로 인해 다리 절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황이 가득했지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마음을 다독여드린 끝에 그는 입원을 결정하셨고, 구청과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긴급의료비를 신청했습니다. 다운님께는 치료에만 전념해 달라고 당부드리며 병원에서도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입원 후 1차 수술로 발가락 전체를 절단하게 되었고, 염증 수치가 안정되면서 고열도 가라앉았습니다. 이후 2차 수술을 통해 종아리까지 절단하게 되었고, 몸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아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자세로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애쓰셨고, 저는 그의 곁에서 지속적으로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하루하루 그의 회복을 돕고자 했습니다.

## III. 당사자와의 이야기 3

### ••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재활과 희망

수술 후 다운님께서 빠르게 회복되었고, 퇴원 후 재활병원에서 치료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장애로 인해

자활사업에 더 이상 참여하시기 어려워지면서 자활사업에서의 종결을 요청하셨고, 이후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기관의 협력으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고, 장애 등급 신청과 의족, 전동휠체어 지원을 받으며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계십니다. "이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긍정적인 다짐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구청, 자활센터 등의 지속적인 협조 속에 다운님께서서는 경제적 지원과 재활 훈련을 받으며 자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그의 곁에서 자립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 차례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며, 어두운 시기를 극복하고 새 삶을 꿈꾸고 계신 그의 모습을 보며 존경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다운님께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꾸려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응·원·글

### 기관 응원글

#### ••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신요한

다운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과 교훈을 남깁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신 다운님의 용기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처음 다운님의 상태를 확인하며 느꼈던 걱정과 불안함은, 그의 긍정적인 변화와 회복의 모습을 보며 점차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려는 그의 결단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지역 사회와 여러 기관이 협력하며, 한 사람의 건강과 자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했던 기간 동안 보여주신 다운님의 성실함과 책임감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으며, 그 열정이 앞으로의 삶에서도 빛을 발하리라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여정을 응원하며, 재활과 자립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저희 센터는 언제나 다운님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 속에서, 한결같은 건강과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실장 박상영

다운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갑작스러운 의료적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재활과 자립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다운님의 긍정적인 다짐은 앞으로의 여정이 밝게 빛날 것임을 예감하게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다운님의 회복과 자립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신 사례관리사님께도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운님의 곁에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로 희망의 다리를 놓아주신 여러분의 노력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다운님, 힘든 과정을 견뎌오신 것처럼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사님, 끊임없이 돕고자 하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이 다운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임을 믿습니다.

두 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만들어갈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다운님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사례관리사님의 끝없는 노력과 열정을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 해피존네트워크 참여기관 응원글

### •• 동래직업자활센터 사회복지사 차재현

다운님의 이야기를 통해, 다양하게 나타난 다운님의 서비스 욕구와 위기 상황에 맞춰,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욕구를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던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소 직장에서 2달 이상 성실하게 출근하던 다운님이 결근하고 연락이 되지 않은 날 하루,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상의 위험신호를 즉시 알아차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하면서, 다운님을 위험에서 지켜줄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아마도 평소 선생님이 다운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덕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운님은 몸이 좋지 않아서 어머니가 계신 타지로 이사를 가고, 발열이 심하고 고름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든 스스로 대처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다운님이 먼저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고 끝까지 그대로 두었다면 얼마나 더 위험했는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족(어머니), 구청, 고시원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다운님이 왜 출근을 못하셨는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던 덕분에, 더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운님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연계 해주고, 계속해서 케어해주셨기에 또 쉽지 않은 수술과 회복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들을 적시에 연결해주신 부분도 쉬운 일은 아니기에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대상자의 좋은 옹호자이자 격려자가 되어주고 또 필요한 서비스의 중개자의 역할을 정말 훌륭하게 수행하신 좋은 사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이를 뿌리치지 않고 치료를 결심했던 다운님의 용기에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다운님과 만나기 위한 과정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설득하는 과정들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운님을 설득했기에, 다운님은 힘들어서 넘어졌을 때 나에게 찾아와 손 내밀어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는 생각도 듭니다. 같은 사회복지사로서 대상자에 대한 믿음과 지속적인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느끼게 해주며 도전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운님의 문제해결과 성장을 위해 진심을 담아 노력하는 선생님의 노고가 느껴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신체장애라는 새로운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야 하는 다운님이지만, 이전보다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다운님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선생님의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다운님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다운님의 앞날과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 혼자가 아닌 함께!

남광종합사회복지관 | 김정빈 사회복지사

### I. 당사자와의 이야기 1

#### •• 홀로 막막했던 일상

“안녕하세요? 행복구청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행복동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장기 입·퇴원을 계속 반복하면서 병원 생활에 의존하는 주민이 계십니다. 저희 행복구청에서 이러한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광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2024년 8월 어느 무더운 날 행복구청 담당자의 소개로 만수 씨와 처음 만났습니다. 만수 씨는 첫 상담을 하는 날에도 가방에 생필품을 챙기고 옷을 챙기는 등 병원 입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수 씨, 남광복지관에서 왔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병원에 입원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해도 될까요?”

“병원에 가면 삼시 세끼 다 챙겨주고 돈도 내지 않으니 편하잖아요. 저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밥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밖에서 먹으면 돈도 많이 들고...”

만수 씨는 과거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님이었고 친분이 있었던 지인의 보증을 잘못 서서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사고를 당해 지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아내와 이혼하였고 슬하에 자녀들이 있었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만수 씨는 앞으로의 살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만수 씨의 집은 원룸형 다세대 주택으로 집안에 가스레인지, 밥솥 등 취사를 위한 조리도구가 없어 음식 조리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세탁기마저 없기에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수 씨에게는 매우 열악한 주거 환경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오랜 병원 생활에 지쳐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리도구 하나 없는 열악한 주거 환경과 건강 악화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만수 씨와 함께 나아갈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 II. 당사자와의 이야기 2

#### •• 누군가의 손을 잡다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만수 씨가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재가 서비스 연계 및 사회적 관계 회복과 자립 생활 향상을 위해 문화체험 활동, 나들이, 요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안내하여 안정적인 일상생활 및 가사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만수 씨에게 알렸고 만수 씨는 고마움을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아직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기에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아직 밖에 나가서 누구 만나고 그런 건 못하겠네요. 몸도 좋지 않고...”

“괜찮아요. 만수 씨 우리 천천히 회복하면서 마음의 준비가 되면 밖에서 바람도 쐬고 친구도 만들어 봐요.”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행복구청, 행복동 행정복지센터와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행복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밥솥과 세탁기, 밀반찬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행복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만수 씨는 감사함을 표현하였습니다.

### III. 당사자와의 이야기 3

#### •• 오르막길

사례관리자는 만수 씨가 어려워하는 가사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을 신청하였고 요양보호사 연계를 위해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만수 씨 1년 동안 만수 씨를 도와드릴 요양보호사입니다.

만수 씨가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는 것이 힘드니 요양보호사께서 도와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뒤) 그런데 도와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는 양념 같은 것도 없어서 요리하기 힘들거든요. 밥은 그냥 밖에서 사먹으면 됩니다. 그냥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수 씨는 갑자기 거부감을 표현하였습니다.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인지 타인의 도움에 대한 거부 반응인지 몰랐기에 상담이 이어 나갔습니다.

“만수 씨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요양보호사가 가사일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당장은 혼자 일상생활 하기가 힘드시니 우선 한 달만이라도 도움 받아 보는 것이 어떠세요?”

만수 씨는 사례관리자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고민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와 사례관리자의 설득으로 만수 씨도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수 씨 생각 잘하셨습니다. 우선은 도움 받아 보고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다음 주부터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식사 챙겨드리고 청소도 해주시고 말동무도 되어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뒤 요양보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만수 씨 집에 방문했는데 만수 씨가 병원에 입원을 위해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고 있던 와중에 저를 마주쳤습니다..”

“제가 금방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급히 전화를 끊고 만수 씨 댁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댁에 도착하니 다행히도 만수 씨는 요양보호사 앞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양보호사가 만수 씨에게 배가 고플 테니 식사 먼저 하면서 대화하자고 권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만수 씨의 주거 상황을 고려해서 집에서 손수 된장찌개 밀키트를 만들어 포장해왔고 집에 있는 휴대용 버너로 식사를 챙겨주셨습니다.

“만수 씨, 요양보호사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애쓰시는데 또 병원에 입원하실 생각이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못 챙겨먹으니 약도 못 먹고 몸도 너무 아프고 해서...”

“그러셨군요. 오늘처럼 요양보호사께서 만수 씨 식사하실 수 있게 도움 주실 거예요.

짐은 다시 꺼내서 정리하시고 댁에서 편하게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주부터 밑반찬 지원이 된다고 하니 식사 챙겨 드시기 더 수월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먹으니 너무 좋습니다.”

사례관리자는 병원 입원은 정말 아플 때만 하자고 약속을 요청하였고 만수 씨는 덩달아 미소를 지으며 약속하겠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 IV. 당사자와의 이야기 4

#### •• 혼자가 아닌 함께!

이후 만수 씨의 삶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사 활동에 서툴렀던 만수 씨는 요양보호사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점차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먹거나 밥솥을 이용해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는 등 자립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요양보호사가 어색해 대화를 피하려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돈독해졌습니다. 이제는 만수 씨가 먼저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만수 씨의 집에는 행복구청의 도움으로 세탁기가 설치되어 이제 손빨래를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밥솥 지원이 되었고 매주 월요일에 밑반찬이 지원되고 있어 만수 씨가 따뜻한 식사를 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복지관에서는 만수 씨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재가서비스와 수시로 후원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례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며, 만수씨의 밝아지는 표정과 행동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만수 씨가 일상에서 안정감을 찾고 자립의 의지를 더욱 키워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씨가 입원을 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을 한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이제 갑갑한 병원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따뜻한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수씨가 성장하고 나아가는데 앞으로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원·글

#### 기관 응원글

##### .. 남광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해영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이 말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만수 씨와 같은 지역주민의 삶에 희망과 변화를 선물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김정빈 선생님의 손길과 따뜻한 관심이 병원이라는 좁은 세상에 갇혀 있던 만수 씨를 조금씩 넓은 세상으로 이끌었고, 이제는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감을 찾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 만수 씨를 만났을 때, 병원이라는 울타리 속에 갇혀 있었던 그의 일상이 상상이 됩니다. 그는 단순히 "편안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홀로서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병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와의 첫 만남을 거부하고도, 결국 설득 끝에 도움을 받아들이게 된 일, 스스로 반찬을 꺼내 먹거나 밥솥을 이용해 식사를 준비하는 자립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일, 그리고 단순히 도움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먼저 대화를 시도하며, 관계 속에서 희망을 찾는 모습까지 이 모든 변화는 단지 만수 씨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지원하며 그의 손을 잡아준 김정빈 선생님과 협력 기관들의 협력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가치를 통해 더 많은 지역주민이 희망을 찾고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수 씨와 같은 지역주민이 사회 속에서, 지역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게 노력하는 김정빈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길 만수 씨를 위해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피존네트워크 참여기관 응원글

##### ..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 사회복지사, 장미화

김정빈 사회복지사님의 사례를 통해 아직 세상이 따뜻하고 함께 가려는 마음을 엿볼 수 있어 행복감이 느껴졌습니다. 불행은 한순간,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만수씨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아픔의 연속이었을까요? 우리는 아주 쉽게 위로를 건넵니다. '할 수 있어!',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빨라!' 라고. 하지만 당사자는 그 무너짐이 두렵고 지쳤을 겁니다. 의기소침해 있는 만수씨에게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그저 가슴이 먹먹합니다. 인간의 기본욕구가 생존과 안전의 욕구라 하지요.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과 가족에 대한 상실감은 마치 긴 터널과도 같았을 것 같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자신이 원하는대로 해결될 수 없는 상실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지하기 시작한 첫걸음을 김정빈 사회복지사님의 노력과 관심 덕분에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와 정신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회복력]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꼽습니다.

앞으로 새로워질 만수씨의 삶을 위해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하기를 바라며 응원합니다. 아울러 노력해 주신 주변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당당한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 허지희 사례관리사

### I. 당사자와의 이야기 1

#### •• 지호씨와의 첫 만남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46세의 지호씨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로 인해 취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근로 활동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물건 정리를 하지 못하는 지호씨를 편의점 점장님은 두 시간 만에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당장 먹을 음식이 없어 라면 하나를 세 번 나눠서 먹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몇 번을..아니 수백 번을 고민한 끝에 지호씨는 129보건복지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지금 돈이 너무 없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뭐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129보건복지콜센터에서 대상자로 의뢰되어 지호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담 일정 협의를 위한 첫 통화에서도, 첫 대면상담에서도 지호씨의 첫 마디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럽고, 자기관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도움을 요청할 다른 가족이나 지인이 없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지호씨의 어머니는 약 10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사망 후 지호씨는 아버지 및 남동생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지호씨는 아버지에 대해 언급하는 걸 꺼려워 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관계가 단절 된 이유에 대해서도 “그냥 뭐 어렸을 때부터 서먹했다”라는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군 제대 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며 생활을 하던 지호씨는 8년 전 파손된 도르레가 왼쪽 어깨로 떨어지며 처음으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는 분위기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진통제를 먹고, 파스를 붙이는게 치료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루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다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몸 상태라도 위험한 공사 현장에서 부상이 있는 지호씨는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벽돌을 등에 이고 계단을 오르다 넘어지면서 기절을 하는 위험한 경우도 몇 차례나 있었습니다. 결국 현장 소장의 결정으로 지호씨는 일을 그만 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사 현장 일을 그만둔 후에 지호씨는 식당, 편의점, 다른 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강 상태로 인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짧게는 몇 시간, 길어도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근로 활동은 1년이 넘었고, 지호씨의 수중에 남아 있는 돈은 채 3만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호씨는 아직 젊은 나이에 관공서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였습니다.

### II. 당사자와의 이야기 2

#### •• 변화를 위한 노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

지호씨에게 필요한 건 생계유지 방법과 정확한 건강 상태 확인 후 증상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맞춤형 급여 및 긴급생계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지호씨는 계속해서 망설였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막상 신청하려니 젊은 나이에 국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부끄럽고, 부양의무자인 아버지가 지호씨의 현재 상황을 알게 되는 것이 싫다는 이유였습니다.

“평생을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 생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힘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인 지원일 뿐입니다.”

겨우 지호씨를 설득하여 긴급생계비를 신청하여 3개월 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는 동안 건강을 회복하여 이후에는 취업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지호씨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두 차례 사례관리사업비를 지원하여 허리와 다리 MRI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였습니다. 다리는 부정 규합으로 수술이 필요했고, 허리도 선천적 기형으로 신경디스크 성형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걱정했던 왼쪽 어깨의 경우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건강 상태 확인 후 저는 수술비 지원이 가능한 자원을 지호씨에게 연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호씨는 “스스로 재활을 해 보겠다”는 의사가 강했습니다.

지호씨는 수술비를 지원받게 되더라도 일부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것이며, 수술 후 재활을 하는 기간 동안의 생계유지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긴급생계비 지원이 한 번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 지호씨의 걱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맞춤형 급여 신청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권유를 하였으나 아버지가 알게 되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제대로 운동도 못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병명이라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 상태에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서 건강 회복하고, 일자리도 구해 보겠습니다”

지호씨의 의사를 마냥 무시할 순 없었으나 건강도 염려되어 2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2개월 동안 지호씨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보되 증상 호전이 없으면 다시 수술을 받는 방향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예전과 비교하여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거동이 훨씬 편안해졌고, 지호씨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는 시점에 지호씨는 운동을 하러 가던 도중 넘어지게 되었고, 혼자서 계단을 오르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이 종결 되어 소득이 전무하였으며, 건강상태까지 악화된 상황에서 맞춤형 급여 외에는 도저히 다른 지원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호씨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지호씨가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도록 설득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금정해피존네트워크 사례관리 컨퍼런스에 사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며 주 내용으로는 “당연히 급여 신청하는 것이 맞다”는 전제 하에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 맞춤형 급여 신청했을 때와 신청하지 않았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 지호씨와 함께 리스트를 작성해 볼 것 등이었습니다.

### III. 당사자와의 이야기 3

#### ••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

해피존 컨퍼런스에서 나온 의견대로 지호씨에게 맞춤형 급여 신청을 권유하기에 앞서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지호씨가 아버지에게 대해 말하길 꺼리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호씨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에게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호씨는 한참을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아버지에게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해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기술자라고 합니다. 대부분을 해외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1년 중 같이 지내는 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이모부가 대신 해 주었는데 이모부는 상당히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가끔 만나는 아버지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전형으로 상당히 과격한 성향이었습니다.

이모부에게 익숙한 지호씨는 아버지를 대하는게 점점 더 어려워졌고 사춘기 이후에는 제대로 된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암이 발병하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후 아버지는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셨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생활비 카드를 지호씨가 관리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및 생활비 외에 지호씨는 개인적인 용도로도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카드 사용 내역을 본 아버지는 정말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지호씨는 “백만원도 되지 않는 돈” 때문에 화를 내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렇게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화를 이제는 알 것 같다고 합니다. 백만원이 아니라 단 몇천원도 아쉬운 상황이 되니 아버지가 짊어지고 있었던 가장의 무게를 알 것 같다고 합니다. 다시 아버지를 만날 때는 당당하고 싶었는데, 10년 만에 받게 되는 아들의 소식이 맞춤형 급여 신청이라는 건 너무 가혹한 것 같다고 합니다.

지호씨의 입장에 대해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아들로써 지호씨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이해하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대신 지호씨의 시각을 지금 당장이 아닌, 얼마의 시간이 지나 실제로 아버지를 대면하게 되는 미래로 돌려 보았습니다.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지금 모습 그대로 아버지를 대면하는 것이 좋을지, 맞춤형 급여로 보호를 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다시 근로활동을 하는 모습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지호씨는 당장 결정을 할 수 없다며 고민 후 연락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완전한 거부의 표현이 아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지호씨는 생계, 의료 급여 신청을 완료하였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급여 책정이 되면 건강관리 후 자활 사업에 참여하거나 다른 직장을 구하겠다는 의지가 높습니다.

이제 겨우 한발을 움직였지만, 그 한발이 모이고 모여 지호씨를 아버지의 앞으로 이끌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응·원·글

### 해피존네트워크 참여기관 응원글

#### .. 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김진희

당사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것이 부끄럽고 민망하게 느껴졌을 것이지만, 그 마음을 헤아리면 그가 처한 상황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건강이 악화되면서 일할 수 없게 되어,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현실은 당사자에게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자립하려는 강한 의지를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당사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자신의 자립적인 노력이 약해질까 우려하며 쉽게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의지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점점 더 힘겨워지는 상황 속에서 결국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례관리사는 당사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그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는 사례관리사에게 큰 고마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례관리사는 당사자의 마음을 헤아려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까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건강 회복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접근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례관리사는 당사자가 처음에는 자신의 건강을 점검받는 것에 대해 망설였을 때, 그를 포기하지 않고 설득했습니다. 당사자는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꼈을 수 있지만, 사례관리사의 따뜻한

제안에 마음을 열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받기로 했습니다. 그 후, 당사자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점검을 받으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금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건강 상태가 조금 회복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으며 다시 낙담하고 좌절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는 그가 다시 자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더욱 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례관리사는 당사자를 위로하며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 진심 어린 격려와 지원은 당사자에게 큰 힘이 되었고, 다시 한 번 자립을 향한 의지를 다지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례관리사는 당사자가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상황을 아버지에게 알리는 것을 여전히 망설였지만, 사례관리사는 그를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었습니다. 당사자는 점차 사례관리사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고민을 통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사례관리사의 지속적인 지원과 따뜻한 관심 덕분에 당사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사자와 사례관리사는 함께 협력하여 자립을 위한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당사자는 자립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사례관리사는 그 의지를 존중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고, 자신이 받은 도움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당사자가 자립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맞춤형 급여가 승인되면 당사자는 자립의 기회를 얻고, 그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당사자는 다시 힘을 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의 노력과 사례관리사의 지원이 잘 어우러져 이루어진 이 과정은, 당사자가 결국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받은 도움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당사자와 사례관리사의 노력 덕분에,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힘내세요, 당사자님! 파이팅!



## 다시 한번 만발한 꽃을

부곡1동 행정복지센터 | 김달용 주무관

### 1. 사례개입 전체 과정

•• 진수 어르신은 꽃을 좋아했습니다. 때가 되면 시장에서 꽃을 구입하여 집에 장식해 놓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어느날 어르신은 꽃을 사기 위해 더듬더듬 꽃집을 찾게 되었고, 꽃집 주인은 어르신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했던 어르신이 뼈가 앙상해 있었고, 사물을 분간 할 수 없을 만큼 시력이 나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수 어르신은 꽃집 주인의 신고로 발굴되었습니다. 부곡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었던 주인은 단골이었던 진수 어르신 댁으로 데려다 주면서 집 안을 보고 한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집안은 온통 쓰레기로 뒤덮혀 흐트러져 있었고,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살기 위해 생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부곡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활동하시는 다른 분께 전화를 하여 먼저 집안에 있는 쓰레기 등을 청소하여 주위 환경을 환기 시켰고, 간단히 요기할 것을 지원한 후 행정복지센터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사업실패로 인한 가정불화로 부인과 사별 후, 부양의무자인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로 홀로 지내며, 꽃을 집에 장식하는 것을 취미로 살아왔으나,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고 동네에서 고립된 상태로 지내왔던 것입니다.

진수 어르신의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하였습니다.

주 2회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통해 요양보호사 주2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 및 청결을 도왔습니다. 또한 복지관과 함께 주거환경 서비스도 지원하였습니다.

시력관련 안과 치료를 위해, 구청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하여 부산의료원에 병원안심 동행을 연계하였고, 주민센터에서는 수시로 가정방문을 통해, 어르신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낡은 수전을 교체하였고, 오래된 도배 장판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연계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르신이 가정방문을 하면,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깊이 항상 고마움의 인사를 해 주십니다. 어르신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만발한 꽃을 구입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II. 사례관리 진행

### •• 사례목표 및 개입서비스

우선순위	제시된 욕구	목표	서비스내용	제공기관
1	일상적인 생활 유지하기	신체적, 정서적 안정감 회복	반찬 지원 및 안부 확인	부곡1동 새마을부녀회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선정	
3	의료기관 연계	시력 관련 연계치료	병원 안심 동행	부산의료원
4			맞춤형 건강 상담 제공	
5	가정방문	신체적 건강 관리	이웃돕기 성품지원	부곡1동 행정복지센터
6	노인맞춤 서비스		주거 환경 개선	남광종합사회복지관

### •• 서비스 개입 결과에 따른 이용자의 변화

대상	이용자의 변화
대상자	- 일상생활 유지 및 신체적, 정서적 안정감 회복 - 부곡1동 새마을 부녀회 식사 및 반찬 제공으로 식생활 개선 - 통합사례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병원안심 동행서비스를 통한 지속적인 치료 및 맞춤형 건강상담 - 노인돌봄 서비스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센터의 주기적인 안부 가정방문



응·원·글

### 해피존네트워크 참여기관 응원글

#### •• 금정구가족센터 사례관리사 최민경

진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읽으며 마음 깊이 울림을 느꼈습니다.

꽃을 사랑하셨던 어르신이, 꽃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했지만 어느 순간 세상과 단절되어 외로움 속에 지내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시력마저 잃고, 홀로 쓰레기와 생라면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셨을 어르신의 고독과 고통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 어르신을 발견하고,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주신 부곡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꽃집 주인님의 따뜻한 행동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단순한 도움을 넘어, 어르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애쓰신 여러분은 어르신께 새로운 희망의 꽃을 심어주셨습니다.

비록 눈으로 세상을 볼 수는 없으시지만, 어르신의 마음 속에는 따뜻한 손길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피어난 감사의 꽃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물들이리라 믿습니다.

진수 어르신께서 다시 한 번 만발한 꽃을 집에 장식하실 날이 머지않아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어르신은 지금의 따뜻한 기억과 함께, 사랑 속에서 활짝 웃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진수 어르신의 건강을, 그리고 어르신의 삶을 밝히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 다시 찾은 미소, 스마일 어게인:)

부곡2동 행정복지센터 | 박서현 주무관

### I. 사례개입 전체 과정

- 올해 초 행정복지센터로 걸려 온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의 전화 한 통.

“상진(가명)씨 이분이 참 성실하시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안타까워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후 사례 관리사와 동행하여 내방한 상진씨는 성인 남성의 체구에 맞지 않게 너무 왜소했습니다. 고개를 꼭 숙이고 입을 가리며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전 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급한 불을 끄려 돈을 빌려쓰다보니 가족, 친구들에게 진 빚이 2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은 제 연락은 아예 받지도 않구요. 제 잘못이었다는 걸 뉘우치고 후회도 많이 했고,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죽어버릴까란 생각도 수십 번 했습니다. 다행히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월세도 지원받고, 자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아껴서 빚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염치없게도 다시 찾아온 이유가...”

바로, ‘치아’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풍치를 생활고로 계속 방치하다가 치주염까지 생겨서 현재  
윗니가 다 빠지고, 아랫니만 5개가 남아있었습니다. 음식을 씹을 수 없어 액체 위주로 대충 떼우다 보니, 체중  
도 줄고 힘이 없어서 쌀 배달하는 자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힘이 덜 드는 동행 업무로 바뀌  
었지만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 외적인 문제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보려 하는데 체력적으로 안 따라주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면 어떻게 생각할지도 부끄럽고, 뜻대로 안되니 삶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네요...  
치과 치료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제 월급을 모아서는 불가능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대상자의 치아 문제만 해결되면 신체·정신적 건강관리와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  
여 지원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상악 완전틀니, 하악 부분틀니를 해서 추정 치료 금액 500만원이 필요  
했습니다.

의료비 마련을 위하여 우선 금정구와 세정나눔재단 업무협약으로 위기가구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후원금  
제도인 ‘희망한중’에 대상자를 추천하여 100만원을 지원받았고, 그 돈으로는 치료를 바로 시작할 수 없어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써버리지 않도록 당부드렸습니다. 이후 대한적십자사에서 하는 ‘희망풍차 긴급지원’에  
사연을 신청하여 치료 후 300만원을 지원받기로 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제가 조금씩 모은 돈으로 보태서 치료하겠습니다.”

치과 치료를 시작하면서 상진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에 연계하  
여 재가서비스 대상으로 등록을 하였고, 치료가 끝나고 난 뒤 균형적 식사를 위한 반찬 배달 서비스를 신  
청했습니다. 동 사례관리비로 분말영양제품을 지원하고, 동 드림 냉장고를 통해 들어온 부드러운 음식  
을 챙겨 영양 보충을 격려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에 대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권유했지  
만, 현재 자활 근무를 하면서 긴 시간을 빼기가 어려워 동과 복지관에서 틈틈이 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지  
를 했습니다.

무사히 틀니 치료를 마친 상진씨. 아직은 잇몸이 아프고, 변화된 얼굴이 어색하지만 조금씩 미소를 지어 보입  
니다. 식사를 잘 챙겨 먹고 체력도 키워 자활 근무를 열심히 할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짝 웃는 얼  
굴로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라며, 상진씨를 응원합니다.

## II. 사례관리 진행

### •• 사례목표 및 개입서비스

우선순위	제시된 욕구	목표	서비스 내용	제공기관
1	신체적 질환 치료하기 (치아 치료)	치과 치료비 마련하기	구 희망한춤 신청	부곡1동 새마을부녀회
2			희망풍차 신청	
3	신체적 건강 관리하기 (영양 불균형)	규칙적·균형적 식사하기	반찬 배달 서비스 신청	부산의료원
4			사례관리비 (분말영양제품 뉴케어)	
5			봉디미 드림냉장고 반찬지원	
6	정신적 건강 관리하기	정서적 안정감 회복하기	건강상담 및 정서적 지지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
7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부곡2동 행정복지센터
8	일상생활 유지하기	생필품 지원하기	푸드마켓 대상자 신청	금정구 사회복지과

### •• 서비스 개입 결과에 따른 이용자의 변화

대상	이용자의 변화
대상자	<p><b>신체적 질환 치료하기</b>: '희망한춤', '희망풍차' 등 후원금으로 의료비를 마련하여 틀니 치료 완료</p> <p><b>신체적 건강 관리하기</b>: 영양 관리를 위해 '복지관, 사례관리비, 드림냉장고'를 통해 반찬 및 식품 지원</p> <p><b>정신적 건강 관리하기</b>: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하고 상담을 통해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안정감 회복</p>



응·원·글

### 해피존네트워크 참여기관 응원글

#### •• 금정구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임지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인 의, 식, 주거 충족되어야 인권이 존중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상진 씨의 경우, 과거의 무리한 투자로 인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할만큼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성실한 모습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다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음에 감사함과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치아의 문제로 '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 스스로 지역사회에 손 내밀었을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였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도움 요청 시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당사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다시 삶의 희망을 갖게 해준 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이종기관들이 모여 한 사람이 주민으로서 지역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통된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협력의 힘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사회복지사로서, 시민으로서, 주민으로서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심, 더 나아가 협력과 해결까지의 역할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사회 안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사례를 통해 앞으로도 부곡2동의 따뜻함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모두 고생많으셨습니다!



## 다시 되찾은 미소

부곡4동 행정복지센터 | 권선영 주무관

### I. 사례개입 전체 과정

•• 영수 씨는 통장님의 신고로 발굴되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가져다드리러 갔던 통장님은 영수 씨의 집을 보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오래된 상가 1층 건물 안 폐업한 가게가 바로 영수 씨의 집입니다.

집 안엔 오래된 공구들이 먼지가 쌓인 채 적제되어 있었고, 천장과 벽은 온통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곰팡이와 먼지들로 인해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태로 영수 씨는 집안에서조차 마스크를 끼고 생활 중입니다.

치아가 없는 영수 씨는 본인의 치아 상태가 부끄러운지 항상 손으로 입을 막으며 말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집에 부엌이 없는 영수 씨는 매일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 컵라면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계셨습니다. 조그만 컴퓨터 책상과 의자 두 개.. 그게 영수 씨가 가진 가구의 전부입니다.

허리 질환으로 인해 병원을 다니고 있는 영수 씨는 의자 두 개를 붙여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간이침대를 너무나 사고 싶었지만 컵라면 사 먹기에도 벅찬 생활에 침대는 사치였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생활에 지친 영수 씨는 한때 삶을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영수 씨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우선, 건강한 식생활 유지를 위해 부산, 함께돌봄사업 '밥이보약' 반찬을 매주 배달 해드렸습니다. 치아가 없는 영수 씨를 위해 보건소 틀니지원사업을 안내하여 무료로 틀니 지원도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영수 씨는 새로운 치아와 함께 컵라면이 아닌 따뜻한 밥과 반찬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수 씨의 소원인 간이침대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더 이상 좁은 의자에서 힘겨운 밤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영수 씨는 곰팡이로 뒤덮인 집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을 신청하였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수 씨는 이제는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찬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입을 가리며 말하던 영수 씨는 이제 밝은 미소로 맞이하십니다. 앞으로 영수 씨의 바람대로 원하는 집으로 이사도 하고 먹고 싶었던 음식도 마음대로 먹으며 힘찬 미래를 나아갈 영수 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II. 사례관리 진행

#### •• 사례목표 및 개입서비스

우선순위	제시된 욕구	목표	서비스내용	제공기관
1	주거환경 개선하기	임대주택으로 이사하기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생필품 확보하기	간이침대 및 전자레인지 지원	부곡4동 행정복지센터
3	규칙적인 식사하기	안정적인 식생활 유지	부산, 함께돌봄 '밥이보약' 연계	금정구지역 자활센터
4	신체적 건강 유지	체계적 건강관리	보건소 노인 틀니보철사업 지원	금정구 보건소
5		건강관리 필요성 인식하기	맞춤형 건강상담 제공	부곡4동 행정복지센터
6	정신적 건강 유지	안부 확인 및 정서적 지지	주기적 모니터링 제공	부곡4동 행정복지센터

•• 서비스 개입 결과에 따른 이용자의 변화

대상	이용자의 변화	
대상자	<b>일상생활 유지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주거환경 개선</b>	- 부산, 함께돌봄 식사지원 '밥이보약' 사업으로 안정적인 식생활 유지 -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으로 보건소 노인 틀니보철사업 지원 - 주기적인 방문 건강 상담으로 안부확인 및 정서적 지지
	<b>주거환경 개선</b>	-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신청 후 선정 - 사례관리 사업비로 간이침대 및 전자레인지 지원하여 생필품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



응·원·글

해피존네트워크 참여기관 응원글

•• 금정구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김지민

우리 주변에는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수씨 이야기 역시 글로는 다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주거환경과 힘든 건강상태로 혼자서 힘겨운 일상을 보냈을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영수씨가 잃어버린 미소를 다시 찾을 수 있었던 데에는 이웃의 관심, 사례관리자의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자원이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수씨와 함께 한 과정을 보면 부산, 함께 돌봄사업의 반찬 배달서비스, 금정보건소 틀니지원사업, 주거물품 지원, LH 임대주택 신청 등이 순차적으로 척척 진행된 것처럼 보일수 있으나 해당 자원들을 찾고 신청절차에 따라 영수씨와 함께 노력한 권선영 주무관님의 애씀이 느껴집니다.

권선영 주무관님과 함께 만든 든든한 디딤돌 위에서 영수씨가 이웃과 관계하며 다시 찾은 밝은 미소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2

# 희망을 선물하다

장전2동행정복지센터 | 문경란, 이나리 주무관

1. 사례개입 전체 과정

•• 수남(가명) 어르신 가정은 금정복지발굴단 '금사빠' 온라인 신고로 발굴되었습니다. 어르신을 만나기 위해 지어진 지 50년 가까이 된 노후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매캐한 곰팡이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누수로 얼룩진 천장, 조각조각 찢어진 장판, 곰팡이로 뒤덮인 벽지, 내려앉은 싱크대, 파손된 방충망, 곳곳에 노출된 전기선, 들끓는 해충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열악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아오신 수남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하신 청각장애인 배우자와 수급자인 정신장애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성치 않은 몸으로 노인일자리 활동을 통해 홀로 외로이 생계를 이어오셨습니다.

열악한 생활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아온 수남 어르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어르신을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후원단체와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민관이 협력하여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도배, 장판, 싱크대, 방충망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노후 된 전등을 LED로 교체하였습니다. 들끓는 해충 박멸을 위해 해충 방제 서비스도 지원하였습니다.

사례관리를 진행하면서 어르신의 건강을 살피고 어르신이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도록 정기적인 건강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신다는 배우자 어르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을 연계하였습니다. 이제 배우자 어르신은 차상위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남 어르신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찾아와 연신 고마움을 표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르신가정이 깨끗하고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삶의 의지와 안정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 II. 사례관리 진행

### •• 사례목표 및 개입서비스

우선순위	제시된 욕구	목표	서비스내용	제공기관
1	주거환경 개선하기	집수리 지원 받기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장전2동 새마을지도 협의회
		전기 안전 점검 받기	전기시설 안전점검, LED 전등교체 ※희망터치라이트업 연계	구 사회복지과
		해충 방제 서비스 지원받기	방역서비스 지원 방충망 수리 ※코지홈 '똑딱'연계	동 사례사업비 구 사회복지과
2	기초생활 해결하기	공적급여 신청하기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 신청	구 생활보장과
3	신체건강 관리하기	정기적인 건강관리 받기	맞춤형 건강상담 제공	동 간호직

### •• 서비스 개입 결과에 따른 이용자의 변화

대상	이용자의 변화
대상자 및 배우자	<p><b>주거환경개선</b> : 집수리, 전기안전점검, 해충 방제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p> <p><b>기초생활해결</b> : 차상위자격 취득으로 인한 의료비 및 각종 요금 감면혜택으로 생활비 부담 완화</p> <p><b>신체적 질환관리</b> : 정기적인 방문상담으로 건강관리 능력 향상</p>



응·원·글

### 해피존네트워크 참여기관 응원글

#### •• 금정구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김금록

힘든 환경은 개인과 가족을 지치고, 병들게 하기 마련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홀로 묵묵히 가정의 역할을 수행해오신 수남 어르신이 새삼 존경스럽습니다.

또 한편으론 홀로 짊어진 가정의 무게로 어깨가 얼마나 무거우셨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금정복지발굴단 선생님들이 가진 민감성 덕분에 한 가정의 무거운 삶의 무게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 다행입니다.

통합사례관리의 가장 큰 장점은 수남 어르신 사례에 나온 것처럼 여러 주민, 기관들이 당사자의 삶의 개선이라는 목적 하나로 연대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남 어르신과 가족의 행복한 삶이라는 목적 하나로 연대의 힘을 보여주신 장전 2동의 다양한 동행자님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지역 내에서 협력과 연대의 힘을 키우고 활용하는 사례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한해도 모두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럼 모두들 남은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하십시오!

PART

# 2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

## 사업소개

- 01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란?
- 02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 미션·비전·전략
- 03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 참여기관
- 04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 추진경과
- 05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 성과
- 06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 자원리스트

## 01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란?

••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기 위한 통합사례관리네트워크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사회복지관, 유관기관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다 통합되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관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나누고, 부족한 자원을 함께 찾고, 힘을 합쳐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지역 내 취약계층 문제해결 역량 및 자립능력강화

통합사례관리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기적인 팀접근 사례회의</li> <li>자원연계 및 자원개발</li> <li>사례관리자 역량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li> <li>실무자간 협의 협력 및 정기회의</li> <li>지역사회 및 주민참여</li> </ul>

### 해피존 네트워크 활동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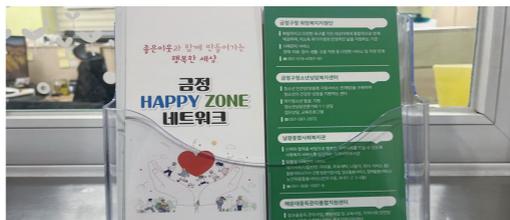
성과보고회 및 기관장협의회



사례관리 실무자 교육



사례관리 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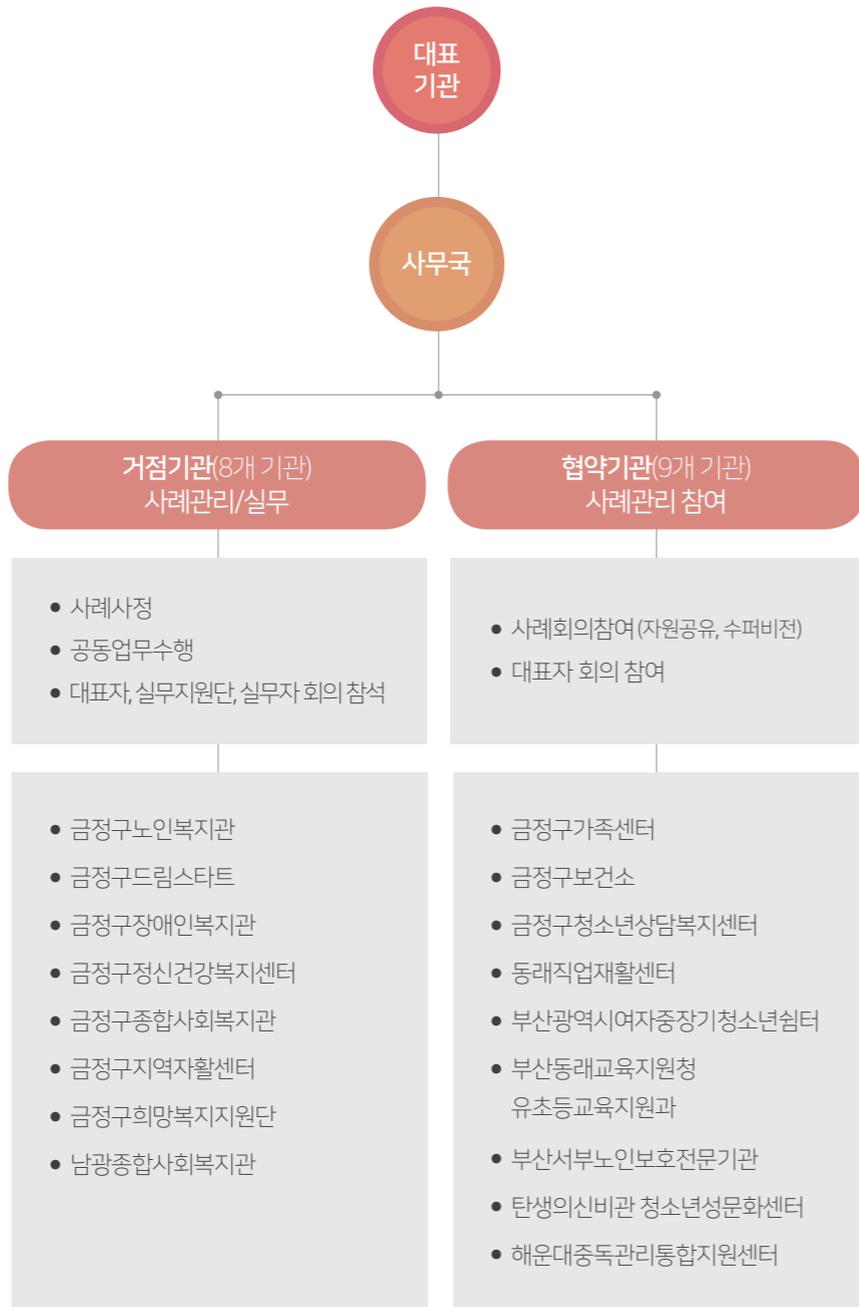


리플렛 제작

## 02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 미션·비전·전략

<b>미션</b> MISSION	좋은 이웃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세상
<b>비전</b> VISION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01. 사례관리 역량강화를 통한 복지 서비스 확대</li> <li>02.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li> </ol>
<b>전략</b> STRATEGY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실무자 사례관리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li> <li>1-2. 사례관리 자문 체계구축</li> <li>1-3. 사례관리 성과 공유 (사례집, 사례발표회)</li> <li>2-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 체계 구축 (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활동 공유, 사례관리 및 자원 협력)</li> <li>2-2. 자원기관 발굴 및 협력</li> <li>2-3. 금정구 사례관리 자원공유 체계 구축</li> </ol>
<b>핵심 가치</b> MAIN VALUE	변화, 감동, 밝음

### 03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 참여기관



### •• 2024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기관리스트

거점기관	기관명	기관주소	연락처	이메일	홈페이지
	1	금정구 노인복지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예전로 110	051-792-7200	gj7222@hanmail.net
2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반송로490번길 47, 2층	051-532-0115	kumjungswc@gmail.com	https://fun.bmswc.or.kr
3	금정구청신건강 복지센터	금정구 중앙대로 1793번길 37, 3층	051-518-8700	busangmhc@naver.com	www.mhmckr
4	금정구청 드림스타트	금정구 중앙대로 1777 5층 아동보호드림	051-519-5168	bsgj@dreamstart.go.kr	https://www.dreamstart.go.kr/bsgj/
5	금정구청 희망복지지원단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051-519-4788	moon321@korea.kr	https://www.geumjeong.go.kr/index.geumj
6	금정구 장애인복지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로 77 금정구청장애인복지관	051-523-0100	gjrc@hanmail.net	https://www.gjrc.or.kr/
7	남광 종합사회복지관	[46202]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349번길 3(노포동)	051-508-1997	namkwang@nkelfare.kr	http://www.nkor.kr/
8	금정구 지역자활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 1719번길 23, 우남빌딩 3층 302호	051-508-2163	nk20000824@hanmail.net	http://www.kjtogether.kr

협약기관	기관명	기관주소	연락처	이메일	홈페이지
	9	금정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 96번길 47(부곡동), 2층 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1-581-2072	gjyouth1388@hanmail.net
10	금정구 가족센터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92, 2층	051-513-2131	gjfc2131@naver.com	gjfc.familynet.or.kr
11	금정구 보건소	금정구 중앙대로 1777번길, 별관5층 건강증진과	051-519-5486	kjh956111@korea.kr	https://www.geumjeong.go.kr/health/
12	부산광역시 동부노인보호 전문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8번길 46, 제이에스빌 5층	051-867-9119	snb1389@naver.com	https://1389.bulgukto.or.kr
13	부산광역시 여자중장기 청소년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팔송로 39번길 109, 2층	051-581-1388	younghee1388@daum.net	-
14	동래교육 지원청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 179번길 31	051-550-0138	draconia@korea.kr	https://home.pen.go.kr/dongnae
15	동래직업 재활센터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2093, 10층	051-581-4165	dongrae20044@naver.com	https://blog.naver.com/dongrae20044
16	탄생의신비관 청소년성문화센터	부산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399번길 324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내	051-508-1808	say1800@hanmail.net	www.busansay.or.kr
17	해운대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853, 반송보건지소1층	051)545-1192	haeundae2010@hanmail.net	www.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com

## 04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 추진경과

- 2007. ~ 2011. - 금정구·해운대구 해피존 네트워크 운영

---

- 2011. 06. ~ 09. -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모임
- 2011. 10. -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컨소시엄 구성(거점기관 6곳, 협약기관 12곳, 지원협력기관 1곳)

---

- 2012. 02. 10. -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발대식 및 기관장 협의회 실시(대표기관 선발, 운영규정 승인)  
- 금정구드림스타트 대표기관 담당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간사기관 담당

---

- 2012. 08. 09. -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신규 협약 체결

---

- 2013. 01. - 남광종합사회복지관 네트워크 대표기관 담당  
- 금정구정신건강증진센터, 금정구희망복지지원단,  
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구,해운대알코올상담센터) 신규 협약 체결

---

- 2013. 12. 18. - 2013년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성과발표회 실시

---

- 2014. 01. 15. - 금정구노인복지관 신규 협약 체결
- 2014. 12. 10. - 2014년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성과발표회 실시

---

- 2015. 01. - 금정구 보건소 신규 협약 체결
- 2015. 01. 23. ~ 01. 24. - 2015년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워크숍 실시
- 2015. 12. 15. - 2015년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성과발표회

---

- 2016. 01. - 금정구노인복지관 네트워크 대표기관 담당
- 2016. 02. 24. - 2016년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워크숍 실시
- 2016. 10. -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
- 2016. 11. -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공동사업 '금정구 지역자원 리스트 북' 제작

---

- 2017. 02. 02. - 2016년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성과발표회  
- 금정구노인복지관 네트워크 대표기관 담당

---

- 2017. 02. - 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센터 신규 협약 체결
- 2017. 03. 03. ~ 03. 04. - 2017년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워크숍 실시
- 2017. 06. ~ 12. - 주거환경개선 '희망동지사업' 진행
- 2017. 11. 01. -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공동사업 '금정구 복지박람회' 「이웃에게 말걸다 토닥토닥」 진행

- 2017. 12. -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우수 사례집 「이웃에게 말 걸다 토닥토닥」 발간

---

- 2018. 01. - 2017년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성과발표회  
- 금정구장애인복지관 네트워크 대표기관 담당

---

- 2018. 03. 29. - 2018년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워크숍 실시
- 2018. 05. - 부산광역시여성중장기청소년쉼터 신규 협약 체결
- 2018. 08. - 동래직업재활센터 신규 협약 체결

---

- 2019. 02. 22. - 2018년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성과발표회
- 2019. 09. 21. - 2019년 금정복지박람회 참여
- 2019. 12. -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우수 사례집 「이웃에게 말 걸다 토닥토닥」 발간

---

- 2020. 03. - 2019년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기관장 협의회(서면동의) 금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네트워크 대표기관 담당

---

- 2020. 11. 03. -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기능 재정립 워크숍 실시  
「금정 해피존네트워크 비전·전략 재수립」

---

- 2020. 12. -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우수 사례집 「이웃에게 말 걸다 토닥토닥」 발간

---

- 2021. 03. 04. -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 2020년 성과 보고 및  
2021년 기관 장협의회(비대면 ZOOM 활용)

---

- 2021. 11. - 2021년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 사례관리 사례집 「이웃에게 말 걸다 토닥토닥」 발간

---

- 2022. 02. 17. -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 2021년 성과 보고 및 2022년 기관장협의회  
- 남광종합사회복지관 네트워크 대표기관 담당

---

- 2022. 11. - 2022년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 사례관리 사례집 「이웃에게 말 걸다 토닥토닥」 발간

---

- 2023. 02. 27. -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 2022년 성과 보고 및 2023년 기관장협의회
- 2023. 11. - 2023년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 사례관리 사례집 「이웃에게 말 걸다 토닥토닥」 발간

---

- 2024. 02. -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 2023년 성과 보고 및 2024년 기관장협의회  
- 금정구노인복지관 네트워크 대표기관 담당

---

- 2024. 12. - 2024년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 사례관리 사례집 「이웃에게 말 걸다 토닥토닥」 발간

## 05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 성과

### 비전 1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민·관 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네트워크 활성화 및  
합사례관리 체계 마련

- 2012년~2019년 사례회의의 62회 진행
- 2012년~2020년 사례판정 및 모니터링 회의 91회
- 2012년~2021년 사례관리 내·외부 슈퍼비전 14회 진행
- 2012년~2019년 집중지원 사례 주거환경개선 사업 실시(10 case)

### 비전 2

####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네트워크를 통한  
유관기관들과의  
신뢰성 향상 및 역량강화

- 2012년~2023년 실무지원단 회의 70회 진행
- 2012년~2023년 실무자 회의 및 소모임 44회 진행
- 2015년~2020년 네트워크 운영 방향성 논의를 위한 워크숍 6회 진행
- 컨소시엄 기관 확대

### 비전 3

####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지역사회 내 영향력 향상

공동사업을 통한  
지역 내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인지도 향상

- 2014년 공동사업 "동행-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홍보 캠페인" 실시
- 2015년 공동사업 "사랑의 김장 나눔, 행복 담그기" 실시
- 2016년 공동사업 "금정구 지역자원 리스트 북" 제작
- 2017년 공동사업 "금정구 복지박람회 「이웃에게 말 걸다 토닥토닥」 실시
- 2017년 공동사업 "우수사례집 「이웃에게 말 걸다 토닥토닥」 제작
- 2018년 공동사업 "금정구 복지박람회 「이웃에게 말 걸다 토닥토닥」 실시
- 2019년 공동사업 "금정구 복지박람회 「이웃에게 말 걸다 토닥토닥」 실시
- 2020년 공동사업 "사례집 「이웃에게 말 걸다 토닥토닥」 제작
- 2021~2024년 "금정 HAPPYZONE 네트워크 사례관리 사례집" 제작

실무자 역량강화 및  
전문성 강화

- 2012년~2023년 실무자교육 19회 진행
- 2013년 우수지자체 사례관리 에세이 공모 최우수상 수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06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 자원리스트

신체 건강	사업구분	서비스구분	대상	실시기관	서비스주기
신체 건강	건강상담 (신체)	건강 검사	금정구민	금정구보건소	상시
		건강 상담			
		난청상담	60세 이상 노인	금정구노인복지관	월 1회
		안마서비스	장애인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주 1회(30분)
개인 위생 지원		난방용품지원서비스 '따뜻한 겨울나기'	복지관 사례관리 대상자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연 1회
		무료세탁서비스 '도깨비 방망이'	세탁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월 1회
		이미용서비스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월 1회
이미용서비스 욕구가 있는 주민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월 1회		
신체 기능 회복		감각통합재활	장애 및 비장애인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주 1~2회
		그룹 특수체육	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		주 1회
		기능회복	60세 이상 노인	금정구노인복지관	상시
			자가운동이 가능한 장애인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상시
		미술심리재활	장애 및 비장애인		주 1~2회
		성인 그룹체육	자가운동이 가능한 장애인		주 1회
		언어재활	18세 미만 장애인 및 비장애인		주 2회
		운동발달재활	장애인 및 발달지연 아동	주 2회	
		음악재활	장애 및 비장애인	주 1~2회	
체능학원 학습지원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금정구드림스타트	상시		
영양 관리 지원	급식지원 (도시락/밀반찬)	돌봄가구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주 2회 (화,목)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금정구재가노인센터	주 1회	
		65세 이하 복지관 재가지원서비스 이용자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주 1회	
		식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상시	
	급식지원(식당)	직원, 자원봉사자, 장애인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상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60세 이상 노인 (수급자 무료)	금정구노인복지관	상시	
기부식품제공사업 '금정구기초푸드뱅크'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가마실복지센터)"	상시		
	저소득층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상시		
의료지원 (신체)		외식육구를 지닌 소외계층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월 1회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일반인 유료)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상시
		병원연계 진료서비스	성인 장애인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주 1회
		성장검사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금정구드림스타트	상시
치과치료비 지원					

2024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자원리스트

정신건강	사업구분	서비스구분	대상	실시기관	서비스주기		
정신건강	건강상담 (정신건강)	가족상담	드림스타트 대상	금정구드림스타트	매주		
			지역주민 누구나	금정구가족센터	상시		
		"온가족보듬사업(심리상담)"	청소년(한)부모, 자녀			상시(가구당10회)	
의료지원 (정신건강)		심리치료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금정구드림스타트	매월		
		정밀심리검사					
		치료비 지원	금정구민	금정구보건소	상시 ※예산에 따라 변경 가능		
정신건강 교육 및 프로그램		가족교육	알코올중독자의 가족	해운대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월 2회 (1,3주 금요일)		
			교육지원	금정구민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상시	
		여성자조모임	여성알코올중독자	해운대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월 2회 (2,4주 수요일)		
			연합 캠페인	금정구민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추후 논의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9세~18세 청소년	국립대구청소년상담센터 053-665-6900	7박 8일, 1개월, 4개월 프로그램 진행		
				유아, 청소년, 성인	부산스마트심센터 051-744-7517	상시	
		재활프로그램	알코올중독자	해운대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주 2회 (화, 목요일)		
				센터 등록회원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추후 논의	
		정서지원 프로그램	장애인 및 가족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주 1회		
		치매예방프로그램	60세 이상 노인	금정구노인복지관	상시		
		회복지원 프로그램	성인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주 1회		
		정신건강 기능회복 지원		가족지원서비스	센터 등록회원 가족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추후 논의
				미술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미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주 1회
정신건강 사례관리	센터 등록회원			금정구	상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추후 논의		
사회적응훈련							
식생활개선사업	절주 및 단주지도 중인 독거알코올중독자			해운대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해당 월 2회 (2~5, 9~11월)		
청년 정신건강 지원	만15세~34세 청(소)년, 가족			부산청년마음건강센터 청춘소셜	홈페이지 참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뇌에 기가 딱딱'	65세 이상 치매위험군 노인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상시				
특화 맞춤형돌봄서비스	65세 이상 취약 노인 (은둔형, 우울형)	금정구노인복지관	상시				

•• 2024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자원리스트

주거 지원	사업구분	서비스 구분	대상	실시기관	서비스 주기
주거지 개보수지원		주거환경개선(개보수)	주거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층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범위 내 지원 (최대 28가구)
				동부주거복지센터 051-810-1360	범위 내 지원 (전화 문의)
주거지 청결지원		주거환경개선 (청소)	저장강박 의심가구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연 2회
			수급자, 차상위 등 중위소득 100% 이내 주민 중 해충 방제 관리가 필요한 가구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연 45가구
임시주거지 지원 (실터)	일시보호	청소년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상시	
	임시주거 지원	긴급하게 주거가 필요한 자		상시	
	중장기보호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부산광역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상시	

•• 2024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자원리스트

여가 문화	사업구분	서비스 구분	대상	실시기관	서비스 주기
문화 서비스		가족상담문화권리보장 프로그램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금정구노인복지관	추후논의
		노인&장애인 통합나들이서비스 '동고동락'	나들이 욕구를 지닌 노인, 장애인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연 1회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장애인 및 지역주민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월 1회
		외부연계 프로그램	장애아동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주 1회
		장애아동 문화예술지원사업			
여가 서비스		가족사랑의 날	2인이상의 가족	금정구가족센터	월 1회 (3주 수요일)
		금정아 놀자			연 2회
		기획나들이 프로그램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월 1회
		남광라인댄스 '다함께 차차차'	65세 이상 노인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주 1회
		남광술체험 교육프로그램 '남광동산'	65세 이상 노인		
		노년사회화교육	60세 이상 노인	금정구노인복지관	상시 (4개월 이용)
		노인여가지원(노인대학)	60세 이상 노인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주 1회
			65세 이상 노인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주 1회
		성인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요리 프로그램	장애인 및 비장애인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월 3회
		성인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요리 프로그램			주 1회
		장애인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반 '커피드림'	성인 장애인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주 1회
		장애인문화 체험서비스 '힐링한 Day!'	여가 욕구를 지닌 장애인		연 1회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 '다같이 다문화 요리교실'	다문화 여성, 장애인		주 1회
		제과/제빵프로그램	60세 이상 노인	금정구노인복지관	추후논의
		주민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장애인 및 지역주민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월 2회
		지역사회 참여지원 프로그램			추후논의
		친환경술체험 프로그램 '술애(愛) 토닥토닥, 자연애(愛) 속닥속닥'	취약계층(독거)노인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주 1회
		패밀리가 뒀다	맞벌이 가정	금정구가족센터	주 4회

•• 2024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자원리스트

자 활 / 자 립 지 원	사업구분	서비스 구분	대상	실시기관	서비스 주기
	고용 지원	일자리제공	노인일자리사업	저소득층	금정구지역자활센터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 제외)				금정구노인복지관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금정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금정구지회 예담복지재단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상시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취업 욕구가 있는 16세 ~ 65세 장애인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상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형일자리)		18세 이상 성인장애인 10명			
직업적응훈련		18세 이상 40세 이하 발달장애인 8명			
사회적 기능 향상 지원		미취학아동 학교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미취학 발달장애, 지연 아동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주 1회
		장애청소년 방학중 프로그램	중, 고,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 장애청소년		방학 중
	정보격차 해소 사업	60세 이상 노인	금정구노인복지관	상시	
	중장년층 사회관계망 회복프로그램 '우리들의 블루스'	장전동 중장년층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주 1회	
사회참여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단계별패키지	입국 5년 이상 한국어가 능통한 취업 희망 저소득 결혼이민자	금정구가족센터	연1회	
	결혼이민자 초기정착지원 프로그램	입국 5년 이내 결혼이민자		연2회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	입국 5년 이상 한국어가 능통한 취업 희망 저소득 결혼이민자		연1회	
	독거노인 고독감 감소 및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자조모임 및 동네마실활동 '고.구.마.'	만 65세 이상 노인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상시	
	선배시민 사회활동 참여	60세 이상 노인	금정구노인복지관	상시	
	여성발달장애인 지역사회관계 역량강화와 권리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소통활동 '여심저격'	여성발달장애인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상시	
	조직화사업 환경개선모임 '함께지길'	환경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 2024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자원리스트

교 육 지 원	사업구분	서비스 구분	대상	실시기관	서비스 주기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	금정구지역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희망의사다리'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	남광종합사회복지관
결혼이민자 초기정착지원 프로그램			입국 5년 이내 결혼이민자	금정구가족센터	연 2회
교육 서비스	교육 서비스	가정방문 교육	드림스타트 등록 아동 (24개월~5세)	금정구드림스타트	월 4회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한국어 교육)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금정구가족센터	1년
		교육지원	전체(실무자, 성인, 장애인 모두)	탄생의신비관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전예약
		기초학습지도	드림스타트 아동, 초등학생	금정구드림스타트	매월
		기후변화 스탬! 제로 탄소! 함께 플랫폼	부곡권역 지역주민 누구나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상시
		노인유사체험	초·중·고	부산광역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수시
		노인인권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월 1회
		노인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스마트다방'	정보화 취약 노인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주 1회
		노인학대예방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일반 시민	부산광역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수시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재학 중인 다문화 아동	금정구가족센터	1년
		독서코칭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유아, 초등저학년	금정구드림스타트	매월
		문해교육지원사업 '실버훈민정음'	성인비문해자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주 1회
		미디어리터러시 역량강화사업 'feel diferently'	금정구 내 청소년		
		상호문화이해교육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금정구가족센터	연 70회
		아동IT교육프로그램 'EXIT'	취약계층 아동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주 1회
		아버지 교육	아버지와 자녀	금정구가족센터	단회성
		어르신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화교실	60세 이상 노인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주 1회
예능학원 연계	드림스타트 등록 아동, 초등학생	금정구드림스타트	매월		
온가족보듬사업(학습정서지원)	미취학, 초·중학교 재학 (손)자녀,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금정구가족센터	1년		

교육 지원

사업구분	서비스 구분	대상	실시기관	서비스 주기	
교육 서비스	이중언어 교육지원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금정구가족센터	1년	
	자녀 성교육	유아,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 및 유아 및 초등학교		단회성	
	자녀돌봄품앗이	자녀와 부모		월 2회 이상	
	장애인집합 정보화 교육	장애인 및 직계가족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상시	
	중등, 고등교육지원	모든 연령대	방송통신 중학교, 고등학교	1년이상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책 먹는 다람쥐'	금정구 내 청소년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상시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정ON' (지역사회 중학교 연계사업)	지역사회 중학생			
	학원 연계	드림스타트 등록 아동, 초등학생	금정구드림스타트	매월	
	한글교실		60세 이상 노인	금정구노인복지관	주 1회
			성인비문해자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주 2회
한글교육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예비 초등학생	금정구드림스타트	매월		
혼례가치교육	예비부부, 신혼부부	금정구가족센터	단회성		
효행교육(인형극)	영유아(어린이집, 유치원)	부산광역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수시		
기술습득 서비스	스마트교실	60세 이상 지역주민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주 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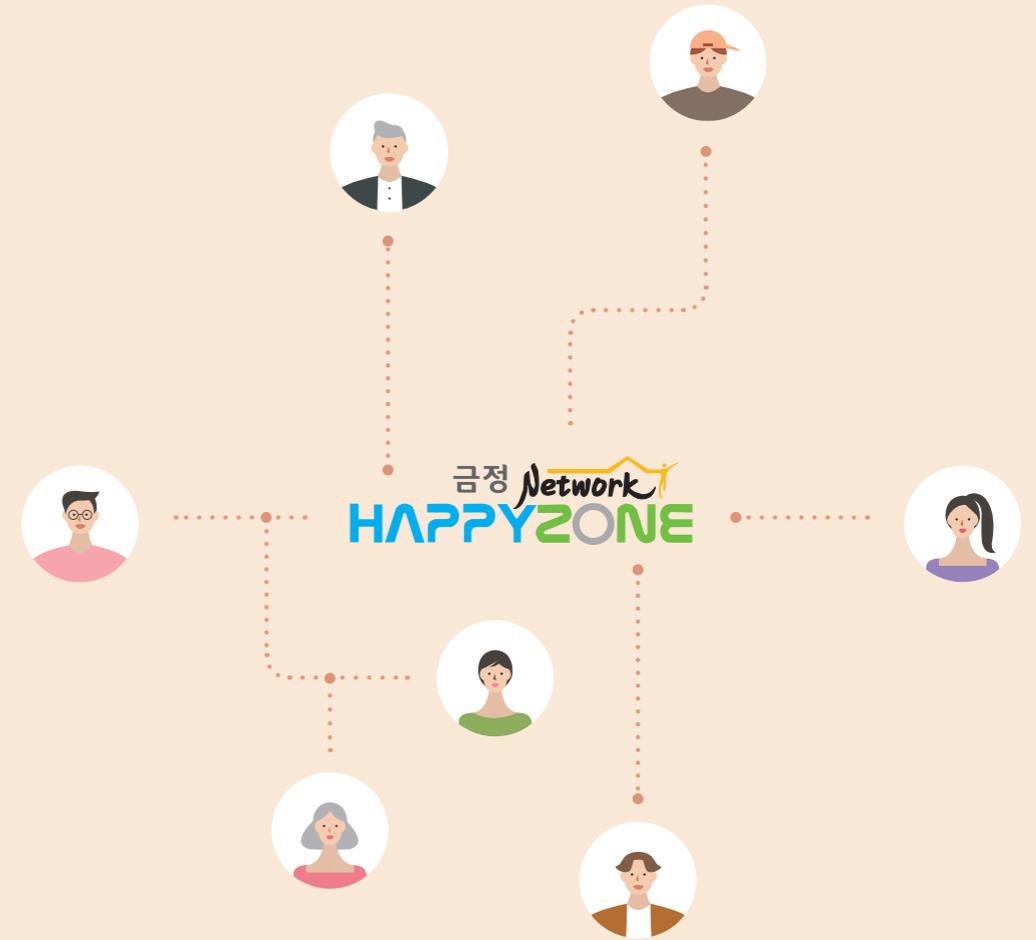
•• 2024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자원리스트

가족 기능 향상

사업구분	서비스 구분	대상	실시기관	서비스 주기
가족 기능 향상	다(多)함께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부모, 고부 등	금정구가족센터	연 2회
	다문화 가족 관계 향상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연 3회
	모두가족봉사단	2인 이상의 가족		월 1회
	영유아 맞춤 부모교육	드림스타트 대상, 24개월 미만자녀	금정구드림스타트	상시
	장애가정아동 성장멘토링사업	장애인 저소득 가정 아동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상시
	장애가족지원사업	장애가족		월 1회
돌봄 지원	가시간병방우체사업	금정구 지역 내 취약계층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상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령자 (금사회동동, 서1~3동)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상시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령자 (금성동, 청룡노포동, 남산동, 구서1~2동, 장전1~2동)	금정구노인복지관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령자 (부곡1~4동, 선두구동)	남광종합사회복지관	
	독거/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중 수급자 및 취약가구, 장애인 가구(수급자)	금정구노인복지관	상시
	부산, 함께돌봄 (돌봄활동가 파견)	서동, 금사회동동, 부곡동 내 돌봄이 필요한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그외비용 발생)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상시
		취약계층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상시
	온가족보듬사업 (1인가구 병원동행)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무료)	금정구가족센터	상시(회당 4시간, 월 4회, 연 15회 이내)
	온가족보듬사업 (생활도움지원)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가족과 동거 중인 긴급위기 가구		상시 (연 90시간)
	이웃의 재발견	위기가구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지역 내 장애인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상시	
통합돌봄사업	거주 케어가 필요한 노인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상시	
보호 서비스	온가족보듬사업(법률지원)	청소년(한)부모	금정구가족센터	상시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	65세이상 노인	부산광역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상시
	온가족보듬사업(출산/양육지원)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중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부	금정구가족센터	상시

•• 2024 금정 해피존 네트워크 자원리스트

사업구분	서비스 구분	대상	실시기관	서비스 주기
기 타  권익 옹호	PSRP(발달장애인 성, 금전 범죄 가/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개별 맞춤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상시
	경계성지능대상자 성범죄예방특화교육	만24세 이하의 경계성 지능 대상자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상시
	법률 상담	장애인 및 가족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월 1회
	자기옹호지원 독립적 권익옹호	장애인 및 가족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상시
	자기옹호지원 '바라보다' 프로젝트	저소득 장애인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월 1회
다양한 가족인식개선	통합프로그램	지역 내 모든 가족	금정구가족센터	연 2회
다문화주민지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탈북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등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02-733-7587	홈페이지 참조
상조 서비스	행복이전 상조사업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일반인 후불 상조서비스 가능)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상시
서비스 이용계획 수립지원	재활상담	장애인 및 가족, 지역주민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상시
이동권 지원	보장구 대여	장애인 및 지역주민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상시
재난경험자 지원	상담지원	재난 경험자, 재난대응인력	영남권국가트라우마센터 055-520-2777	홈페이지 참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취업준비 지원	센터 등록 정신장애인	상담지원	상시
	취업유지 지원	센터 등록 취업정신장애인	동래직업재활센터	
	자립 지원			월 1회
통·번역서비스 (베트남어)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외국인·난민가족 또는 다문화가족, 외국인·난민가족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금정구가족센터	상시
학생맞춤 통합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	복합적 어려움이 있는 관내 초·중학생	동래교육지원청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2024년 금정 HAPPYZONE 네트워크  
사례관리 사례집

이웃에게  
웃말걸다  
토닥토닥 😊

